

My Friend ASEAN

청소년용
아세안 바로 알기
워크북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ASEAN-KOREA CENTRE

아세안 개요

아세안은 동남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경제 성장을 추구하고 사회·문화 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하에 1967년 창설되었습니다. 이후 지속적인 통합 노력을 통해 아세안은 2015년 말에 정치·안보, 경제, 사회·문화 세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는 아세안 공동체(ASEAN Community)를 새롭게 출범시켰으며, 동시에 향후 10년간의 청사진인 '아세안 공동체 비전 2025'를 발표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도 아세안은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EAS),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SEAN Regional Forum, ARF) 등 동아시아 전반의 현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를 주도함으로써 아세안 중심성(Centrality)을 구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세안은 인구 6억 3,000만 명, 국민총생산(GDP) 2조 6,000억 달러에 이르는 거대 경제 공동체 출범으로 국제사회에서 아세안의 위상과 영향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세안 주요지표

인구 : 6억 3,000만 명(세계 3위)

면적 : 447만km²

경제규모 : GDP 2조 6,000억 달러(전 세계 총 GDP의 3.2%, 세계 7위)

교역량 : 2조 5,300억 달러(수출: 1조 2,900억 달러 / 수입: 1조 2,400억 달러)

회원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사무국 :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소재(사무총장: Le Luong Minh)

‘친구’를 불러 볼까요?

한국	친구	
브루나이	Friend	[프렌드]
캄보디아	មិត្តភក្តិ	[멧페악]
인도네시아	Teman	[떠만]
라오스	เพื่อน	[프언]
말레이시아	Kawan	[카완]
미얀마	သူငယ်ချင်း	[따웅예진]
필리핀	Kaibigan	[카이비간]
싱가포르	Friend	[프렌드]
태국	เพื่อน	[프언]
베트남	người bạn	[느이반]

일러두기

- 이 책은 한-아세안센터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아세안의 바른 모습을 알리기 위해 제작한 교육자료입니다.
- 이 책은 아세안을 잘 이해하기 위한 참여형 콘텐츠 형태로 제작되었습니다.
- 수록된 지표와 통계는 원고 작성 당시의 최신정보로 변화되었을 수 있습니다.
- 이 책에 나오는 인명, 지명, 고유명사, 발음표기는 대중적 표기를 따랐습니다.
- 이 책은 한-아세안센터의 간행방침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소년용 아세안 바로 알기 워크북

내 친구 아세안



ASEAN-KOREA CENTRE

청소년 여러분,

아세안에 대해 들어 봤나요? 아세안은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4~6시간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이에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이 그 국가들이죠.

아세안에는 약 6억 3,000만 명의 사람이 살고 있어요. 정치형태, 종족, 종교, 문화, 역사 등 다양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죠.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어우러져 살고 있는 아세안 10개국은 2015년 말, ‘아세안 공동체’라는 하나의 공동체를 탄생시켰어요. 서로 더 가까운 친구가 되기 위해서요.

아세안은 한국과도 가까운 친구예요. 눈부신 자연경관과 수많은 세계유산을 자랑하는 아세안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여행하는 곳이죠. 아세안은 한국의 중요한 무역 파트너이기도 해요. 1989년 처음으로 ‘대화관계’를 수립한 한국과 아세안의 교역은 지난 27년간 무려 17배가 증가했어요. 지금은 미국, EU, 일본을 제치고 중국에 이어 한국의 2대 교역 파트너가 되었죠.

자, 이제 아세안으로의 여행을 떠나보려 해요. 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을 여행하면서, 아세안이 가진 무궁무진한 매력을 알아가고, 아세안과 가까운 친구가 될 수 있는 여행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여행을 시작해 볼까요?

목차

01

아세안을 만나다

04

02

아세안 회원국 소개



브루나이

16



캄보디아

20



인도네시아

24



라오스

28



말레이시아

32



미얀마

36



필리핀

40



싱가포르

44



태국

48



베트남

52

03

함께 가는 친구 아세안

56

04

한-아세안센터 소개

67

다양성 속의 통합- 아세안 공동체

Unity in Diversity

수많은 다른 점을 가지고 있지만 다름을 인정하고
그 바탕 위에 하나됨을 추구하기 위한 노력이
1967년부터 시작되어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이라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 공동체를 통해
아세안뿐만 아니라 전 세계와 함께 발전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10개국의 지역 협력기구 아세안



아세안 창립

(창립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1967년

아세안 10개국 가입 완료

(브루나이 1984, 베트남 1995,
라오스 1997, 미얀마 1997,
캄보디아 1999 가입)

1999년

2008년

아세안
헌장 발효



아세안 회원국은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을 추구합니다.

01

300여 개의 민족과
700여 가지의 언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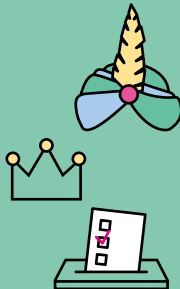
02

다양한 종교와
수많은 토속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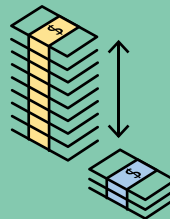
03

다양한 정치 체제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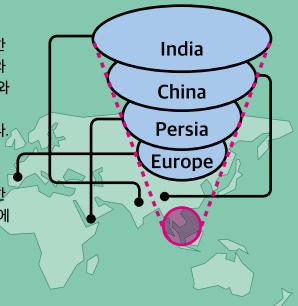
경제발전의 차이



05

외래문화의 영향

해상 무역의
중심지에 위치한
아세안은 인도와
중국, 페르시아와
유럽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 영향으로
아세안에는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가 생활 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세안 로고

동그라미는 아세안의 통합을 의미하며 10개의 뾰족 뿔은 10개 회원국이 화합하기를 바라는 염원을 나타냅니다.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아세안 공동체

아세안 정치·안보 공동체

아세안 회원국들이 서로 민주적이고 평화롭게 지내는 것을 목적으로 규범을 공유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아세안 경제 공동체

하나의 시장과 생산기지를 만들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균형 있는 경제발전을 추진합니다.

아세안 사회·문화 공동체

공동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배려와 나눔이 있는 공동체 설립을 목적으로 문화자원 보존 및 인재양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2009년

아세안 연계성
마스터플랜

2015년

아세안
공동체 출범

2025년

아세안
비전

아세안 회원국은
많은 점도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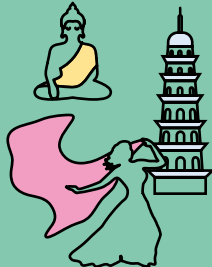
01

열대기후



02

풍부한 문화유산



03

다채로운 음식문화



04

유구한 역사



05

아름다운 자연 환경



AS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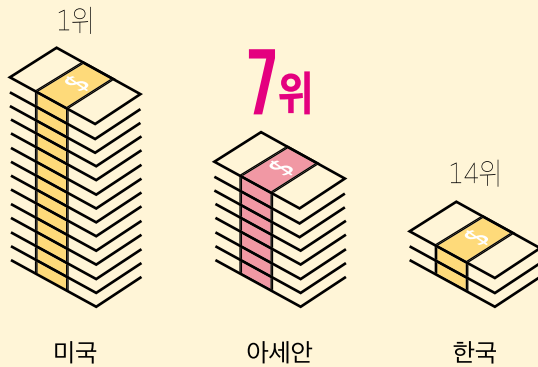
1967년 출범한 아세안(ASEAN)은 동남아시아 10개 회원국으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뜻합니다. 다양한 민족과 종교, 각기 다른 정부 형태를 가진 아세안 인구 6억 3,000만 명은 하나의 '아세안 공동체'로 2015년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아세안의 모토는 One Vision(하나의 비전), One Identity(하나의 정체성), One Community(하나의 공동체)입니다.



01

경제규모 세계 7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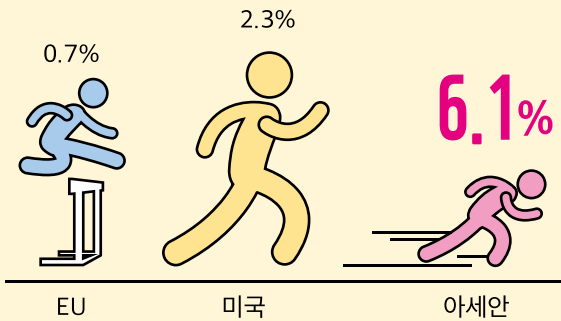
(GDP: 2조 6,000억 달러, 2014, IMF)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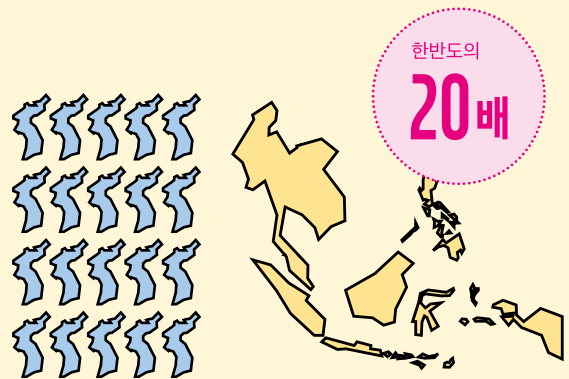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곳

(경제성장률, 2013, IMF)



03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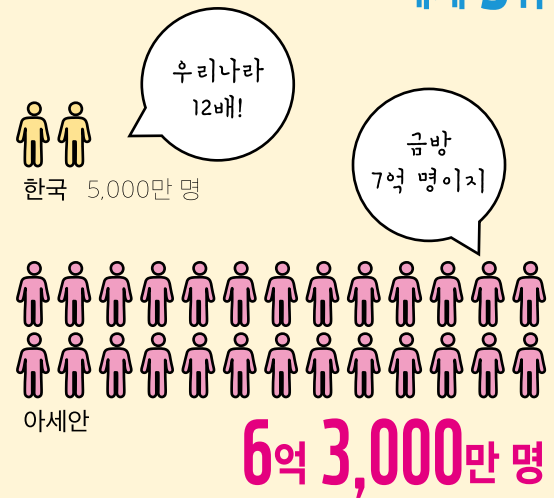
(447만km², world bank)

04

인구

(아세안 사무국)

세계 3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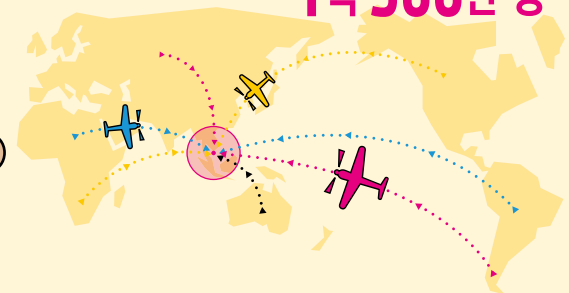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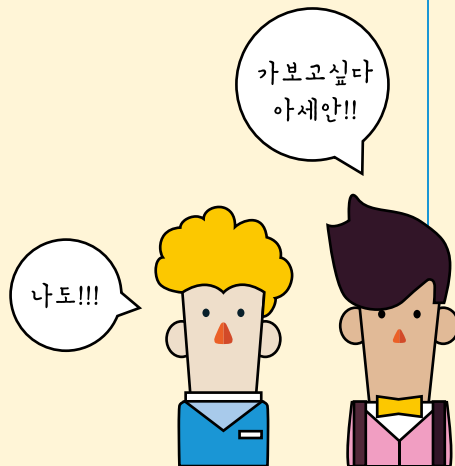


05

모두가 가 보고 싶어 하는 곳 아세안

1년 동안 아세안을
방문한 외국인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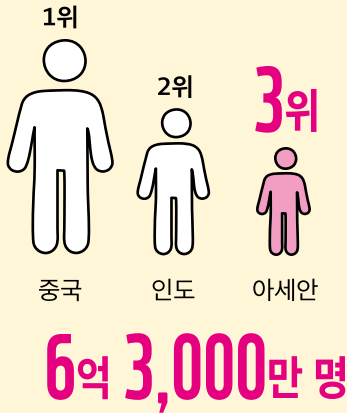
1억 500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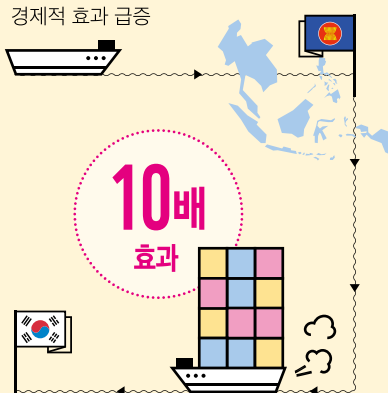
성장하고 있는 젊은 지역

01 가장 장래성이 높은 시장

인구수 세계 3위



통합된 시장, 아세안 경제 공동체(A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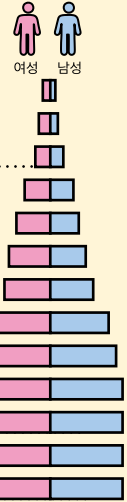
젊은 경제인구

(IMF, 2018년 전망)

65세 이상
4,600만

20~64세
3억 9,400만

0~19세
2억 2,400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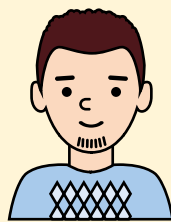
02 세계에서 가장 젊은 지역

(국가별 평균 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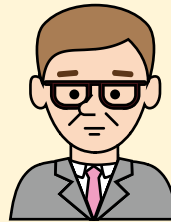
아세안

27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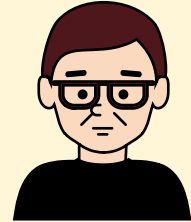
한국

37.3세



독일

43.8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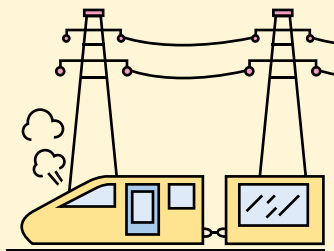
일본

44.2세

03 투자하고 싶은 지역 1위

아세안 경제 공동체 출범

단일시장, 단일 생산기지,
아세안 회원국 간 교통·
에너지·ICT 등 통합
인프라 구축을 위한
새로운 투자 기회 제공



다양하고 풍부한 천연 자원의 보고

석유, 천연가스,
니켈, 주석, 구리,
보크사이트, 티타늄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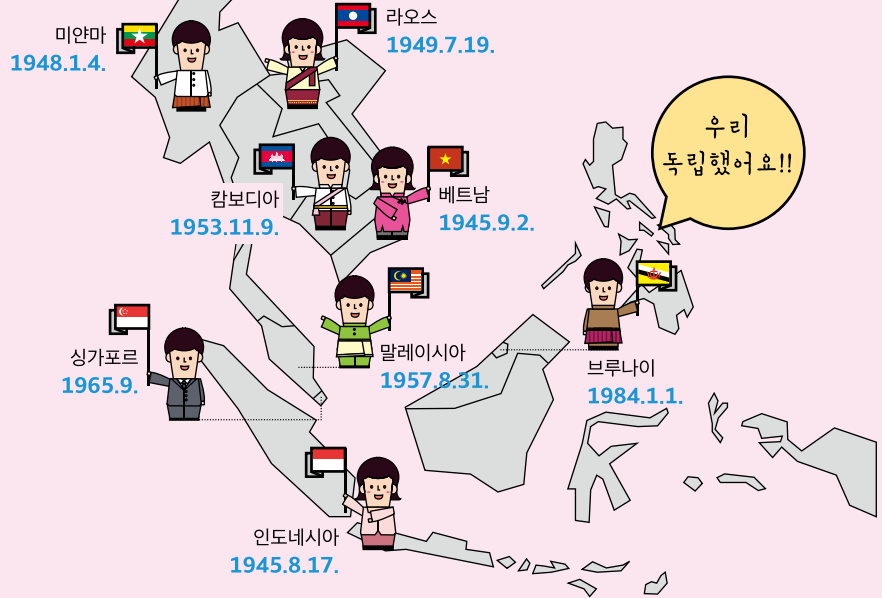
한국과 아세안은 친해요

아세안은 우리와 닮았어요!

01

외세로부터 독립하여
새로운 꿈을 꾸는 곳

아세안의 국가들은 오랜 역사를 가진 곳이 많습니다. 각기 다양한 전통 문화를 간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았고, 태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들이 2차 대전 후 독립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일은 1945년 8월 15일입니다. '광복절'로 기념하지요.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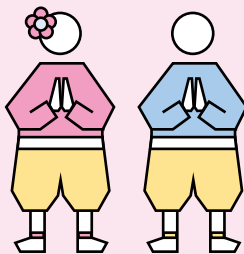
쌀을 먹어요!



비슷한 피부색을 가졌고 온도가 높고 강수량이 풍부한 지역 특성상 쌀이 많이 재배되어 주식으로 삼고 있어요.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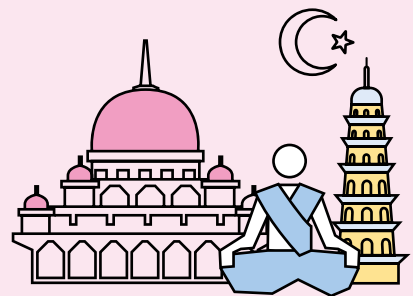
동양의 전통·예절



역사와 전통이 깊은 아시아의 나라답게 아세안과 우리나라 모두 남을 배려하고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04

다양한 종교의 조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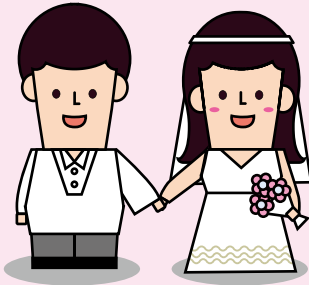
불교, 유교, 그리스도교 등 여러 종교와 토속신앙이 존중받는 우리나라처럼 아세안에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합니다. 오래된 유물과 크고 작은 유적지가 있으며, 서로 다른 속에서 차이를 인정하고 조화를 이루고 있지요.

01 한국 속의 아세안인

아세안 회원국에는 약 30만 명의 우리 국민이 거주합니다. 우리나라에도 약 30만 명의 아세안 국민이 살고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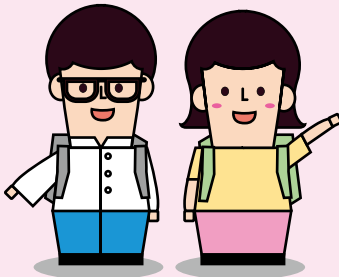
아세안인과
결혼한 한국인

약 9만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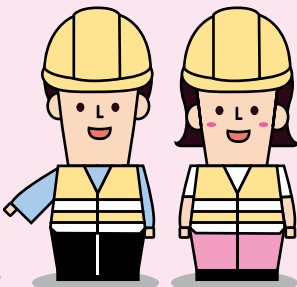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유학생

약 1만 명



한국에 거주하는
아세안 근로자

약 17만 명



02 한국과 아세안 교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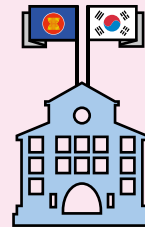


1997년

제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1989년

한-아세안
대화관계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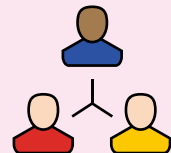


2009년

한-아세안 관계 20주년
특별정상회의
개최(제주)
한-아세안센터
출범

2010년

한-아세안 전략적
동반자 관계 승격



2012년

주 아세안
대한민국
대표부 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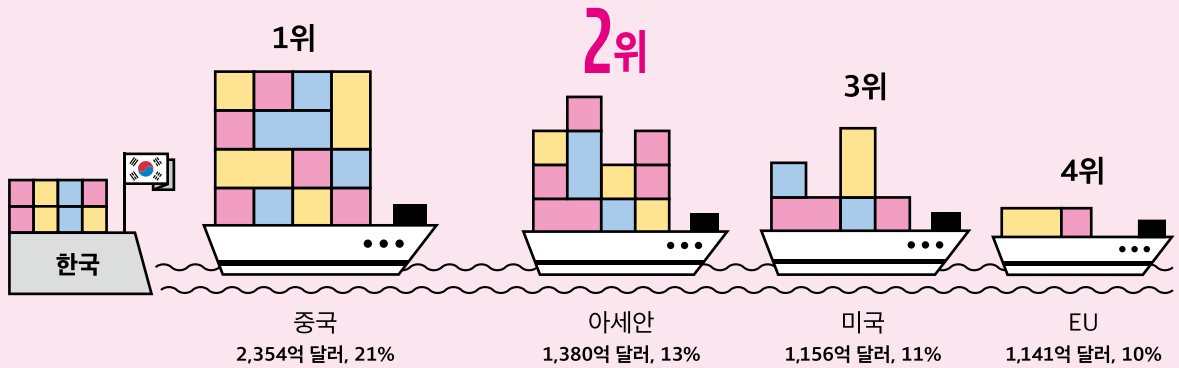
2014년

한-아세안 관계 25주년
특별정상회의
개최(부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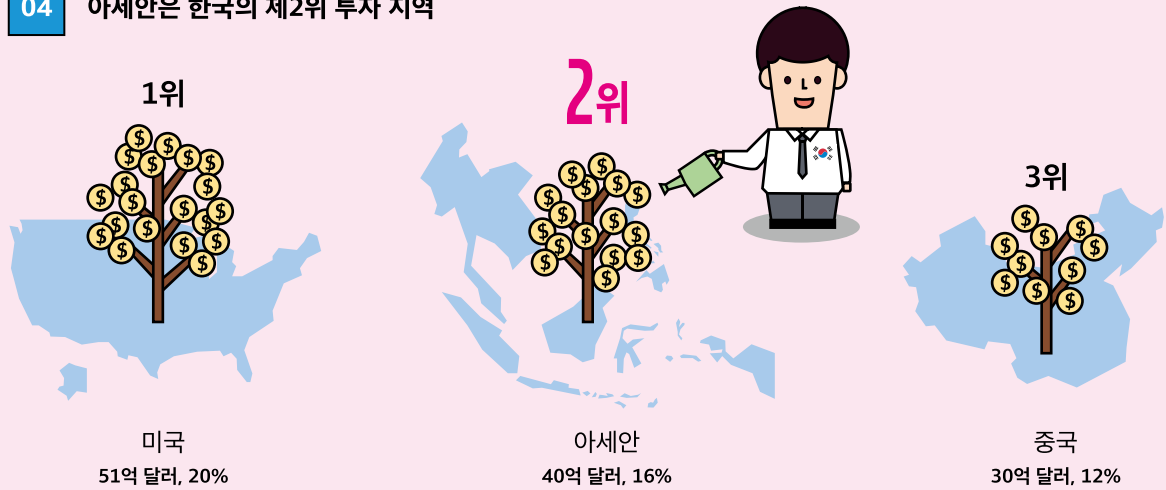
2017년

한-아세안
문화교류의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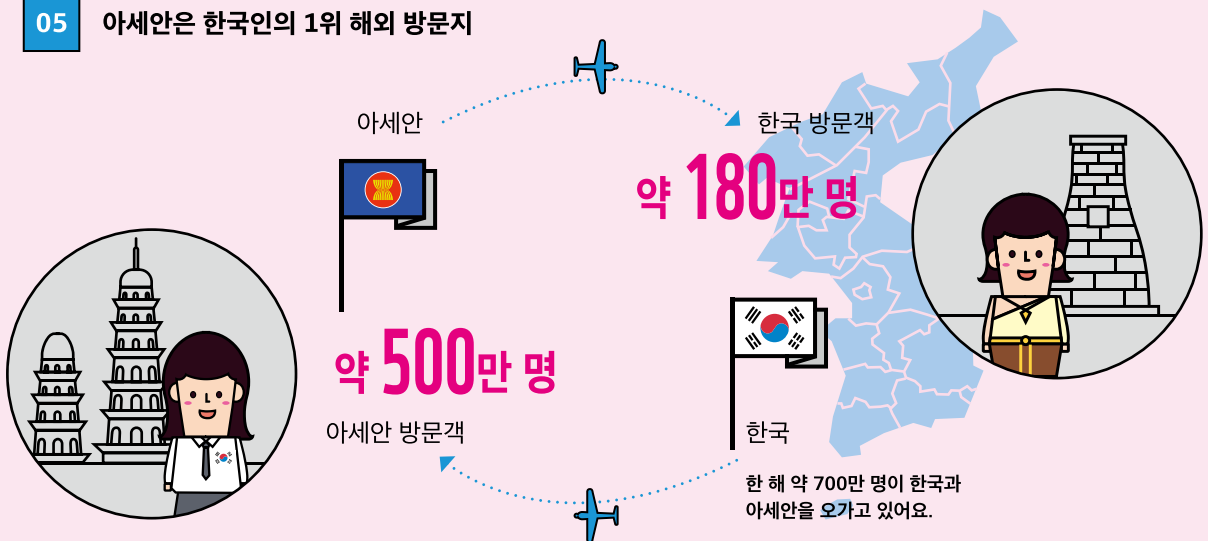
03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무역 파트너



04 아세안은 한국의 제2위 투자 지역



05 아세안은 한국인의 1위 해외 방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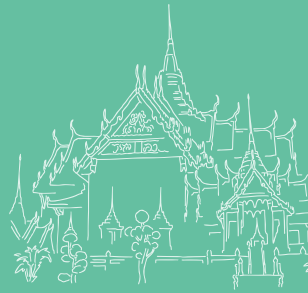


다르지만
하나의 꿈을 꾸는

×
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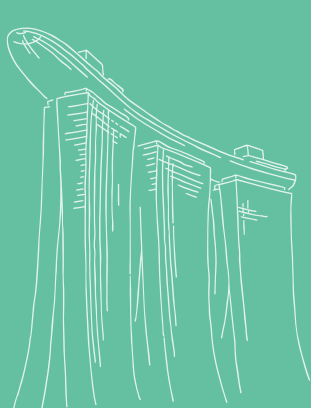
+
한국과 함께하는
더 밝은 미래
우리는 아세안입니다.

아세안 회원국 소개





- 16 **브루나이** 평화가 깃든 왕국, 아시아의 숨겨진 보석
- 20 **캄보디아** 크메르인의 자부심과 영광을 느껴 봐~
- 24 **인도네시아** 다양함 속에서 조화를 이룬 떠오르는 별
- 28 **라오스** 아름다운 자연과 전통을 지키는 나라
- 32 **말레이시아** 다양성이 존중받는 역사 깊은 나라
- 36 **미얀마** 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불교 유적지
- 40 **필리핀** 살아 숨쉬는 자연 속에서 여유를 누리 보자
- 44 **싱가포르** 작지만 알짜배기 부자나라 그리고 축제의 나라
- 48 **태국** 매력적인 문화, 역동적인 활동을 체험해 볼까?
- 52 **베트남** 빠른 성장의 원동력은 강인한 민족성과 풍부한 천연자원!





평화의 땅 브루나이(Brunei Darussalam)는 동남아시아 보르네오 섬의 북서 해안에 있는 나라로, 술탄이 다스리는 곳입니다. 브루 나이는 경기도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작은 나라지만 석유와 천연가스가 풍부하여 1인당 GDP가 4만 1,424달러나 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부자나라입니다. 국민들은 세금을 내지 않으며, 교육비와 의료비도 모두 무료입니다. 말레이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슬람교 국가인 만큼 이슬람교의 주요 행사는 국가적인 대규모 행사로 치러지고 있습니다. 나라 전체가 금주령을 시행하고 있어서 브루나이 사람들에게 술을 권하거나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1년 내내 25~30도의 일정한 온도를 기록하는 브루나이는 자동차 키를 하루 종일 꽂아 두어도 될 정도로 안전한 치안을 자랑합니다. 브루나이의 수상가옥은 보기와는 다르게 전기는 물론이고 수도·정화시설까지 모두 갖춘 친환경 주거지입니다.

01 공식 국장

국장 양쪽을 감싸고 있는 손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무를, 날개는 정의와 평화를 뜻합니다. 초승달 안의 문구는 '언제나 신이 인도하시는 대로 복종하라'란 뜻으로, 초승달은 브루나이의 국교인 이슬람교를 뜻합니다. 초승달 밑의 리본에는 브루나이의 공식 명칭인 "브루나이 다루살람국"이 적혀 있으며, 국장에 사용된 문자는 Jawi(자위) 문자입니다. 이 국장은 브루나이 국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02 분리된 영토

브루나이는 말레이시아 영토 때문에 동서로 나뉘어 있는데 인구의 97%가 서쪽에 살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85%가 숲과 산이고, 경작지는 3~5%에 불과합니다.

반다르세리베가완

이 나라의 중요로움은 국민들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철학이라네.

에헴~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 나라의
국왕(술탄)이자
총리이자 국방장관,
재무장관이지.

03 텬부롱

브루나이의 동쪽 지역에 위치한 텬부롱에는 울루텬부롱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이 공원은 무려 5만ha 규모로 아시아의 허파라 불릴 만큼 열대우림이 발달한 곳입니다. 다양한 종류의 동식물이 서식·분포하고 있어 생태관광의 보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04 술탄

이슬람은 왕을 일컬어 '술탄'이라 부릅니다. 브루나이의 술탄은 알라의 신권을 대신하는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정국가지만 브루나이의 국왕은 부를 독점하지 않고 설날 세뱃돈을 100만 원씩 지급하거나 가정에 4대의 차량을 지급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파격적인 복지정책을 펼쳐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습니다.





05 샤리아 형법

샤리아 형법은 이슬람의 종교적 가르침에 기반을 둔 형법으로 처벌 내용이 아주 엄격합니다. 브루나이 국민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독특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방문할 때의 주의사항이야!

06 Jawi 문자

브루나이에서 사용하는 공용어는 말레이 문자(Jawi 문자)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고, 글자를 죽 이어붙여 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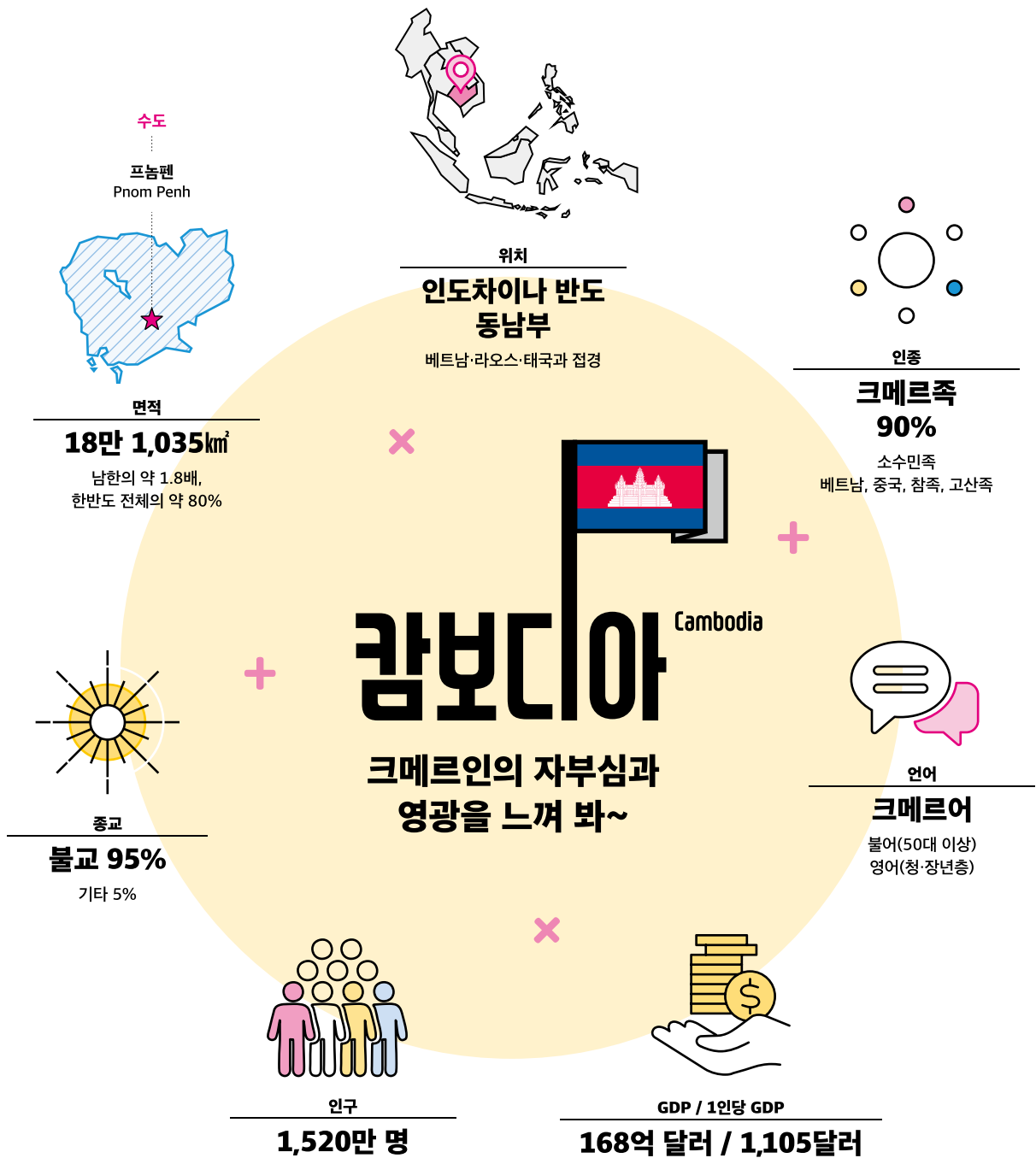
ا	ب	ت	ث	ج	ح	ڄ
خ	د	ذ	ر	ز	س	ش
ص	ض	ط	ظ	ع	غ	ڄ
ف	ق	ك	گ	ل	م	ن
و	و	و	ه	ي	ن	ه



07 술탄 오마르 알리 사이푸딘 모스크

브루나이의 수도 반다르세리베가완에 있는 이슬람 사원으로 인공호수로 둘러싸여 있으며 호수 안에는 16세기 왕실 유람선을 본떠 만든 배가 있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중앙돔은 높이가 52m에 이르며 반다르세리베가완 어느 곳에서도 보이는 브루나이의 대표적인 건축물입니다.





캄보디아 왕국(Kingdom of Cambodia)은 9세기경 앙코르 왕조를 건설하여 전성기를 이루었던 크메르 민족의 후예들이 만든 나라입니다. 민족의 90%가 크메르족이며, 헌법에 “공식어와 공식문자는 크메르어와 크메르 문자이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크메르 제국은 캄부자(Kambuja)라고도 불렸는데 크메르어로 캄보디아를 가리키는 캄푸치아(Kampuchea)나 영어의 캄보디아(Cambodia)라는 명칭은 모두 이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면적은 남한의 1.8배이며 인도차이나 반도 서남부에 있는 베트남·라오스·태국과 국경이 접해 있습니다. 캄보디아의 기후는 11월부터 1월까지를 제외하면 32도를 웃도는 덥고 건조한 기후입니다. 1인당 국민소득은 주변 나라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경제성장률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관광산업은 가장 빨리 성장하는 산업입니다.



크메르 제국의 영광이 지나간 캄보디아 곳곳에는 많은 유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산이 거의 없고 강과 호수가 많은 캄보디아의 사람들은 물과 밀 접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01 입헌군주제

캄보디아는 입헌군주제 국가로 국왕이 있는 나라입니다. 옆의 국가문장을 보면 가운데에 국왕의 왕관이 있고 두 마리의 사자가 다섯 개의 층으로 된 왕실의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아래의 파란 리본에는 크메르어로 "캄보디아 왕국의 국왕"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라오스

태국

02 열대몬순 기후 대평원

태국·베트남·라오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캄보디아는 국가의 대부분이 평원이며 건기와 우기가 구분되어 있는 열대몬순 기후를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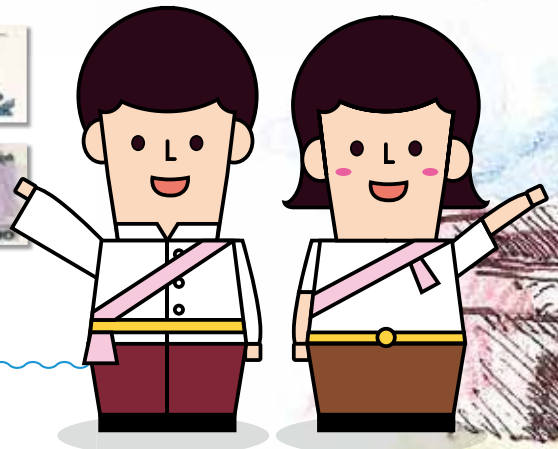
베트남

03 톤레삽 호수

우리나라 경기도보다 큰 톤레삽 호수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이며, 세계에서는 세번째로 큼니다. 바다를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물고기가 많이 잡히는 곳이기도 합니다.

04 화폐와 경제

따뜻한 기후를 바탕으로 국민의 70%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캄보디아는 최근 봉제와 섬유산업이 빠르게 발달하여 500개가 넘는 대형 섬유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폐에는 캄보디아의 왕과 존경받는 승려, 대표 문화유산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05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의 국민이 불교를 믿는 캄보디아에는 오래된 절과 불교 관련 유적이 많습니다. 또한 조용하고 보수적인 캄보디아인들은 예절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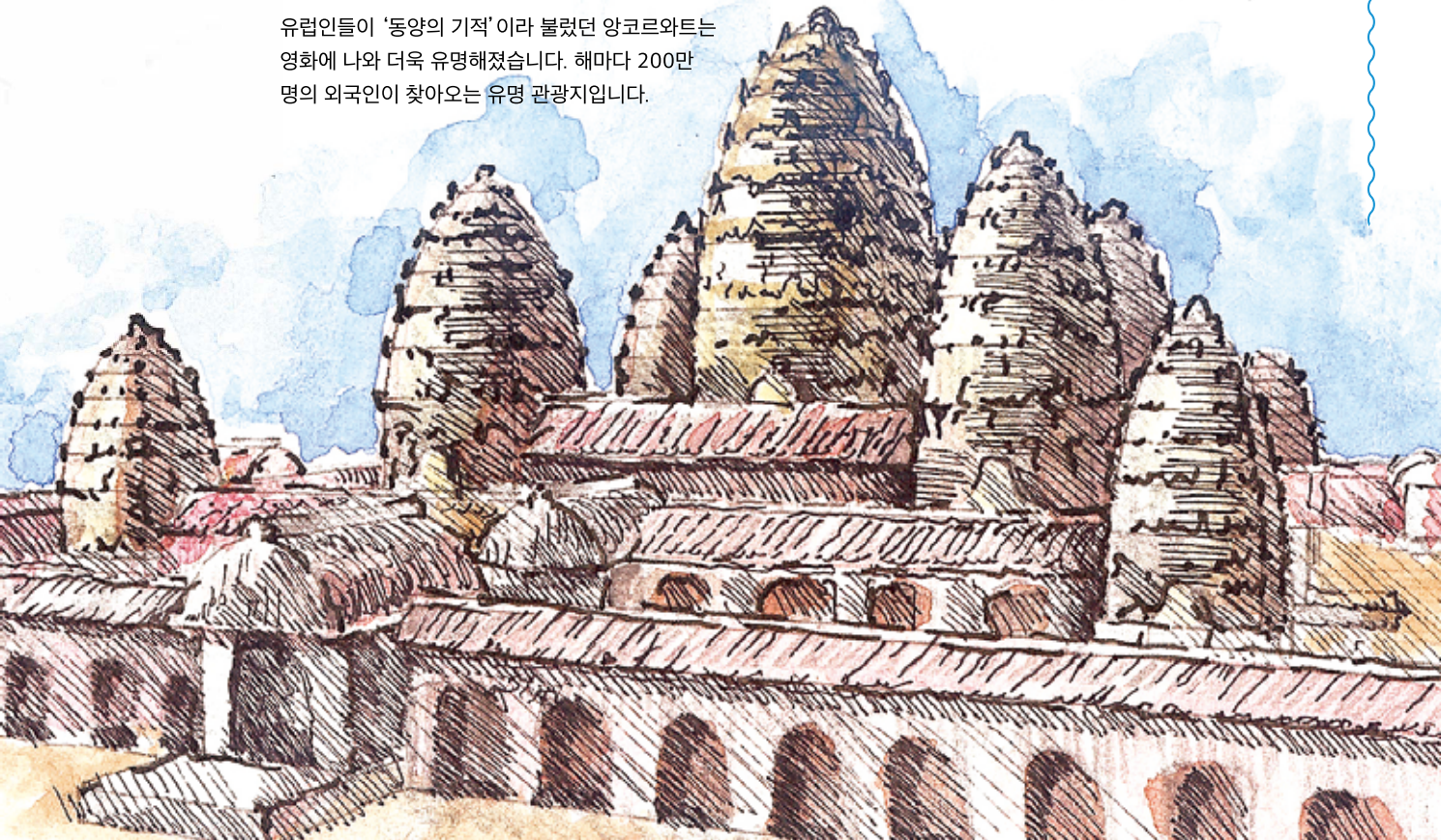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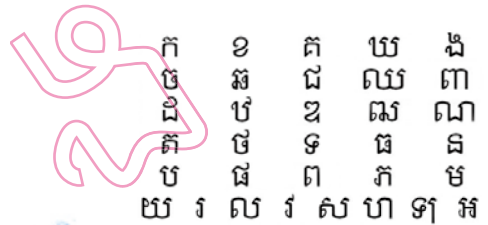
캄보디아에서는 '성'보다 '이름' 위주로 부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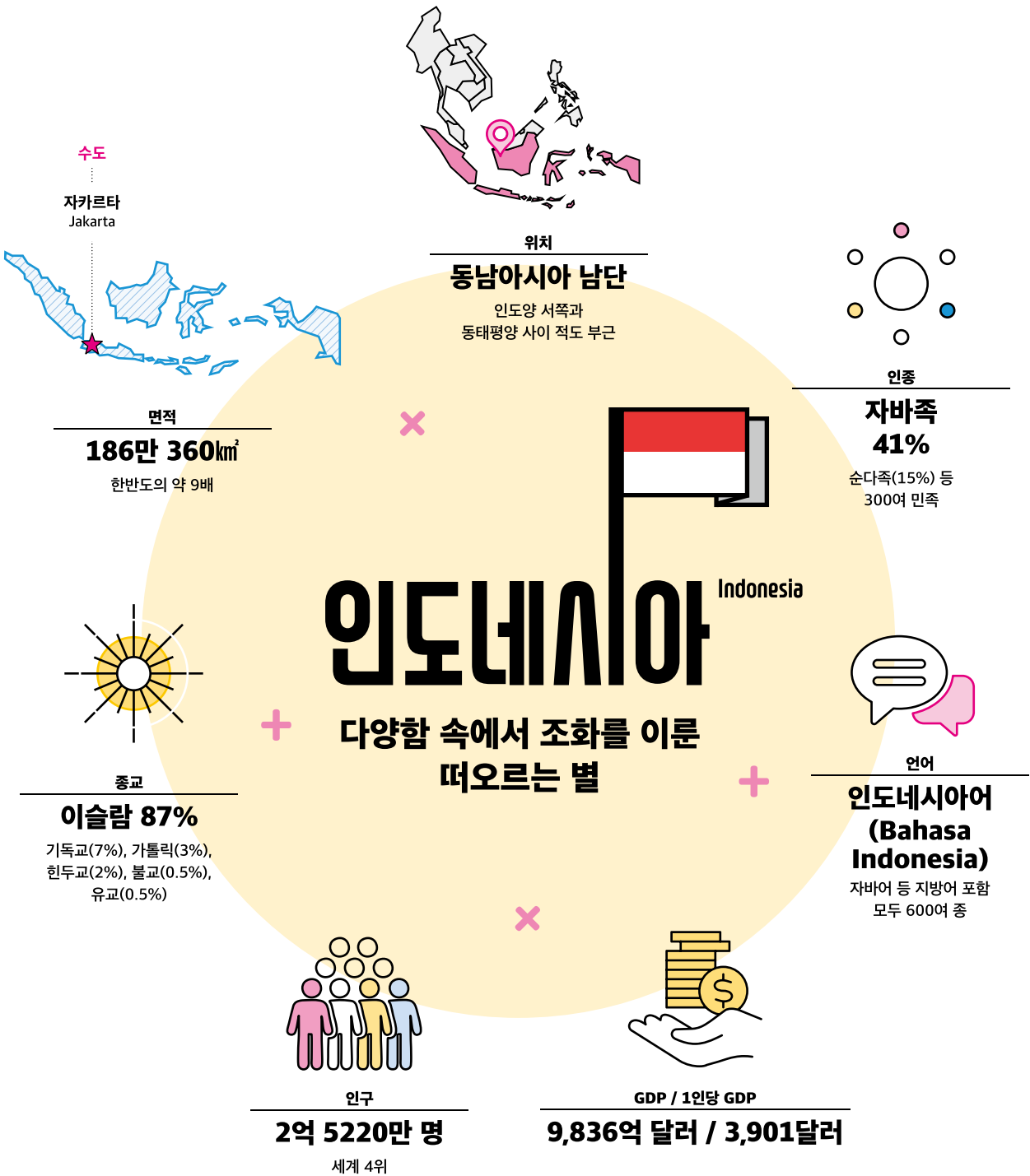
07 앙코르와트

유럽인들이 '동양의 기적'이라 불렀던 앙코르와트는 영화에 나와 더욱 유명해졌습니다. 해마다 200만 명의 외국인이 찾아오는 유명 관광지입니다.

06 크메르어

캄보디아는 크메르어로 불리는 독자적인 말과 언어를 사용합니다.





적도 부근에 위치한 섬나라 인도네시아(Republic of Indonesia)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가진 나라입니다. 약 1만 8,000여개의 섬으로 구성되었고 자바 섬, 수마트라 섬, 파푸아 섬 등에 인구의 절반이 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섬은 동서로 길게 뻗어 있고 섬마다 독특한 고유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 4위의 인구대국인 인도네시아는 인구의 87%가 무슬림으로 세계에서 이슬람교도가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을 강요하지 않고 헌법에 의해 신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다양성을 존중하는 나라입니다.



'다양성 속의 통일'을 국가의 목표로 삼고 있을 정도로 인도네시아에는 많은 인구, 민족, 섬, 언어, 문화, 종교가 있습니다. 섬마다 다른 문화가 있고,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인도네시아는 또 하나의 작은 세계입니다.

01 공식 국장

인도네시아 국장의 새는 인도 신화에 등장하는 신조(神鳥)인 가루다입니다. 황금 날개에 태양을 싣고 동쪽에서 서쪽으로 운반하는 태양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국장의 가루다는 힘을, 금색은 위대함과 영광을 상징하며 가루다가 붙잡고 있는 두루마리에는 인도네시아어로 “다양성 속의 통일”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02 완전한 열대성 기후

적도 가까이에 있는 인도네시아는 연중 높은 기온을 나타내며 건기와 우기의 구별이 뚜렷합니다. 더운 날씨 때문에 12월에도 해수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03 발리 Bali

관광지로 널리 알려진 발리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필리핀에서 홍해까지를 잇는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옛날부터 교역이 활발하였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25~30도지만 바닷바람이 불기 때문에 체감기온은 실제 온도보다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발리에 서식하는 토케이게코라는 대형 도마뱀의 울음소리를 연속으로 일곱번 들으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04 여성의 지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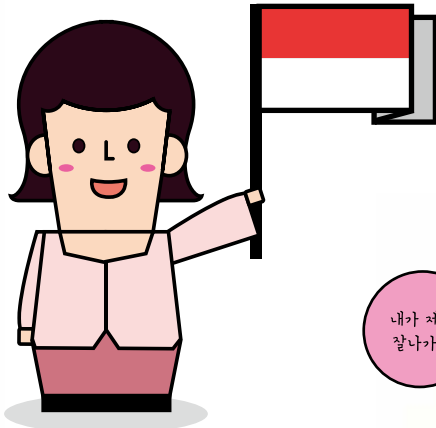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이 제한적으로 보장되는 반면에 인도네시아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무척 활발하며 가정에서도 여성의 위치가 남성과 동등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어 법적으로 여성 정치인의 비율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른 이슬람 국가의 여성들과 다른 점이 있어!



05 풍부한 천연자원

국토의 70%가 삼림인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 목재 산업국이며 풍부한 지하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고무와 커피 생산은 각각 세계 2위와 3위입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야



인도네시아 7대 대통령 조코 위도도

07 보로부두르 Borobudur

면적 1만 2,000㎡, 높이 약 31.5m에 이르는 10층 구조물인 보로부두르는 1,000년 이상 된 사원입니다. 현지인들에 의하면 스투파에 오른손 엄지를 넣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불교 세계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건축물인 이 사원은 1991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목록에 등록되었습니다.

*스투파 Stupa : 부처님의 사리를 넣은 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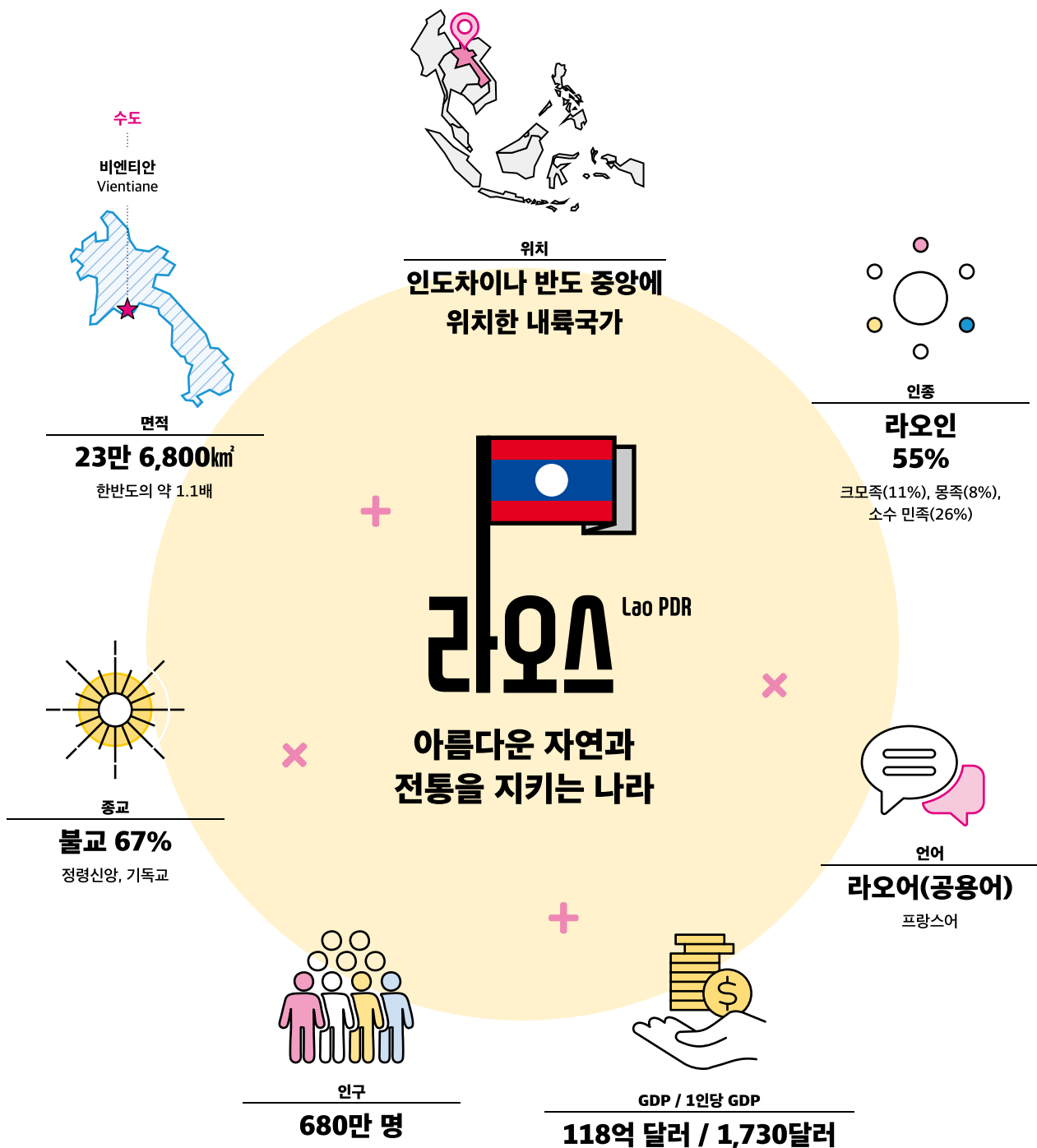


06 G20 회원국

아세안 회원국 중에서 유일하게 G20 국가에 포함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동남아 지역 중심 국가이자 21세기를 주도할 신흥 국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G20 회원국 명단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EU,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호주, 남아프리카공화국



인도차이나 반도 중앙에 위치한 라오스(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는 아세안 국가 중 유일한 내륙국가입니다. 라오스의 기원은 현재 라오스의 영토를 대부분 지배한 란상왕국으로, 라오스 정체성의 기반이자 불교문화를 꽃피운 왕조입니다. 1당제의 사회주의 공화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민의 90%가 농민이지만 풍부한 천연자원으로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책상다리로 앉아 식사를 하고 매운 음식을 좋아하며 찹쌀을 즐겨 먹는 등 우리와 닮은 점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토의 70%가 산지인 라오스는 바다가 없지만, 동남아를 관통하는 메콩강이 1,900km에 걸쳐 흐르고 있고 계곡과 산이 많습니다. 이 산들은 평균고도 1,500m로 높은 산들입니다. 가장 높은 비아산은 백두산보다 높은 2,820m입니다.

01 공식 국장

가운데는 불교사원인 파탓루앙이 자리하고 있으며 사원 아래쪽으로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의 왼쪽과 오른쪽에는 댐과 논이, 아래쪽에는 톱니바퀴가 그려져 있습니다. 버 이삭이 국장의 양쪽을 감싸고 있으며 이삭 아래 빨간 리본 중심에는 라오어로 "라오 인민민주공화국"이, 왼쪽에는 "평화, 독립, 민주주의"가, 오른쪽에는 "통일과 번성"이 쓰여 있습니다.



02 동서양이 조화를 이룬 루앙프라방 Town of Luang Prabang

라오스 최초의 통일 왕국인 란상(Lan Xang) 왕조의 수도였던 루앙프라방은 라오스 전통양식의 건물과 오래된 사원, 프랑스풍의 저택들이 조화를 이룬 지역입니다. 1995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아름다운 곳입니다.



비엔티안



03 돌항아리 평원

시앙쿠앙에 위치한 평원에 크기 1~3m, 무게 약 3톤에 이르는 2,500여 개의 돌항아리가 있습니다. BC 600년~AD 550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될 뿐 돌항아리의 쓰임새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04 비엔티안 Vientiane



라오스의 수도인 비엔티안은 '향나무의 도시'라는 뜻에 어울리게 큰 나무가 많이 있는 전원도시입니다. 비엔티안 평야를 끼고 있어 농산물이 많이 재배되며, 견직물과 은 세공품도 유명합니다.

05 튜빙에 몸을 맡겨 봐

라오스의 물은 우리나라 강원도 계곡의 물처럼 맑습니다. 방비엥에서는 튜브를 타고 둥둥 떠내려가는 튜빙을 즐길 수 있습니다.



06 공손함이 담긴 예절

앉아 있는 사람을 지나갈 때는 몸을 구부리고 지나가며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야 합니다. 걷는 것과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는 발을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입니다. 라오스에서 승려는 숭배와 존경을 받는 대상입니다. 여성이 승려의 몸이나 복장에 손을 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놉(Nop) : 라오스 사람들은 두 손을 합창하고 서로를 맞이하는데 이러한 전통인사법을 놉이라고 합니다.



어른이나윗사람에게 공손하게 인사할 때는 엄지 끝이 코에 닿을 정도로 손을 높이 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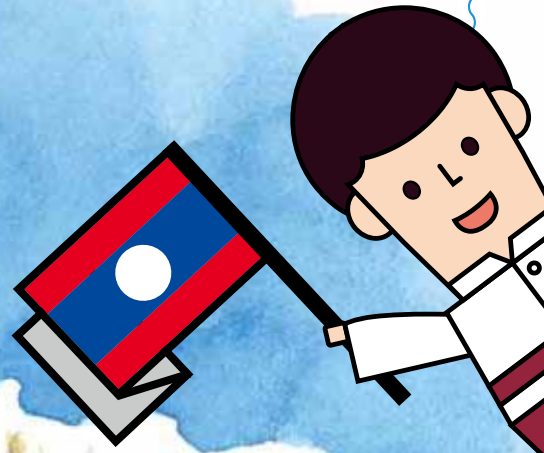
07 화폐와 경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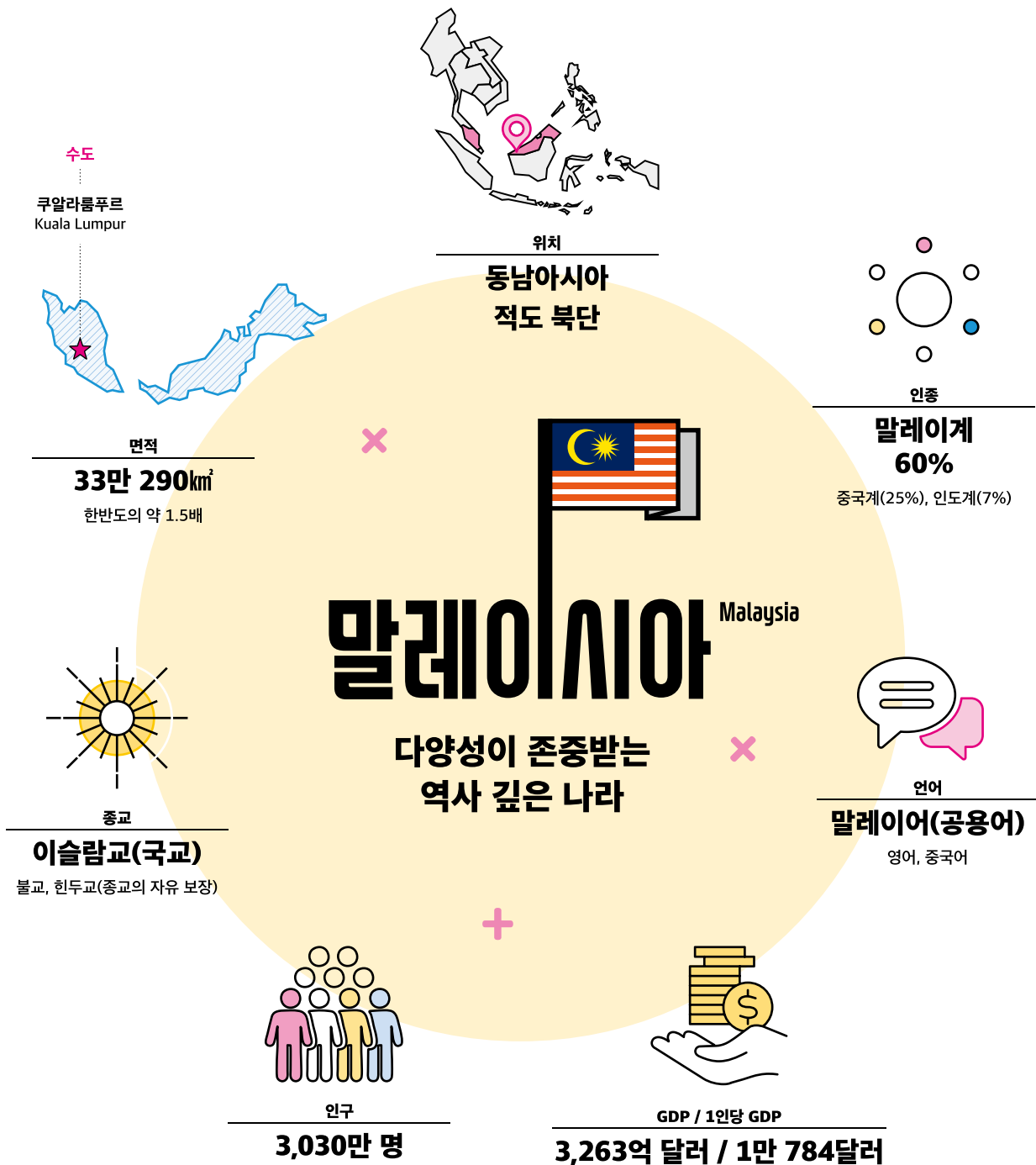


라오스에서는 동전을 사용하지 않고 500~10만 킵 사이에 있는 8장의 지폐만 사용합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농민인 농업국가라 공산품은 대부분 수입합니다. 주변국가들과 경제 규모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풍부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바탕으로 경제개발이 기대되는 나라입니다.

08 탯루앙 사원 That Luan

탯루앙 사원은 1566년 '세타틸랴왕'에 의해 세워진 라오스의 대표적인 상징물로 '위대한 탑'이라는 뜻입니다. 석가모니의 머리카락 사리와 유물을 모신 곳으로 불교와 라오스 주권을 상징하는 45m 높이의 웅장한 기념물입니다.





말레이 반도와 보루네오 섬 지역으로 구성된 말레이시아^{Malaysia}는 입헌군주국입니다. 13개 주와 연방 직할구로 이루어진 연방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13개 주 모두가 말레이 왕국에 기반한 고유의 왕실을 두고 있는데, 이중 9개 주의 왕들이 5년마다 순번제로 국왕을 선출하고 있습니다. 천연자원이 많은 말레이시아는 천연고무·석유·주석 등을 수출하고, 제조와 관광업도 크게 발달하였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한 말레이시아는 예로부터 동서무역의 중심지로 말라카·랑카위·페낭 등 항구도시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말레이시아는 엄격한 관리로 자연환경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쿠알라룸푸르에 있는 페트로나스 트윈타워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쌍둥이 빌딩으로, 한국과 일본의 건설사가 각각 한 쪽씩 지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01 공식 국장

으르렁거리는 듯한 호랑이 두 마리가 방패 양쪽에 그려져 있고, 가운데의 초승달과 별은 각각 말레이시아의 군주와 국교인 이슬람교를 상징합니다. 노란색 리본에는 말레이시아의 표어인 “단결은 힘”이 말레이어와 자위(Jawi) 문자로 쓰여 있습니다.



02 야생동물의 천국

말레이시아는 밀림이 많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기후 때문입니다. 전형적인 열대우림형으로 고온다습하며 연평균 기온은 27도, 연평균 강우량은 2,400mm이며 몬순기(10월~2월)에는 4,000mm가 넘는 집중 강우를 볼 수 있습니다. 밀림에는 호랑이와 원숭이류를 비롯하여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말레이 반도

쿠알라룸푸르

보루네오 섬

03 오래된 문명

말레이시아에 사람이 거주하기 시작한 시기는 약 4만년 전이라는 기록이 있을 정도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던 국가입니다. 기원 후 말레이 반도에는 동서양 무역상과 여행객들이 오가며 무역항과 해안 마을이 건설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몇몇 왕국들이 나타나 번창하였고, 14세기 무렵에 아랍 상인들이 이슬람교를 소개한 것이 말레이시아가 이슬람 국가가 되는 기틀이 되었습니다.

04 조지타운 Gorge Town

동양과 서양의 접촉을 위한 통로가 된 조지타운은 500년 이상 동서양의 교역과 문화교류를 하며 발전하였습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영향을 모두 받은 이 도시는 독특한 건축과 문화, 도시 경관을 만들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람들은 이곳을 그대로 보존해 왔고 2008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쌀



말레이시아 쌀

05 나시 Nasi

말레이시아의 주식은 쌀이지만 우리나라와 품종도 다르고 조리 방법도 다릅니다. 쌀을 전기밥솥에 담고 끓는 도중에 물을 버리거나 휘저으면서 끓이면 말레이시아의 쌀밥인 나시가 됩니다. 우리나라 밥만큼 찰지지 않습니다.

06 다양성의 공존

말레이시아는 아시아의 대표적인 무슬림 국가이지만 이외에도 다양한 종교·민족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말라카 지역에서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그리스도교의 건물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다민족·다문화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매년 축제를 열고 있습니다.



세인트 폴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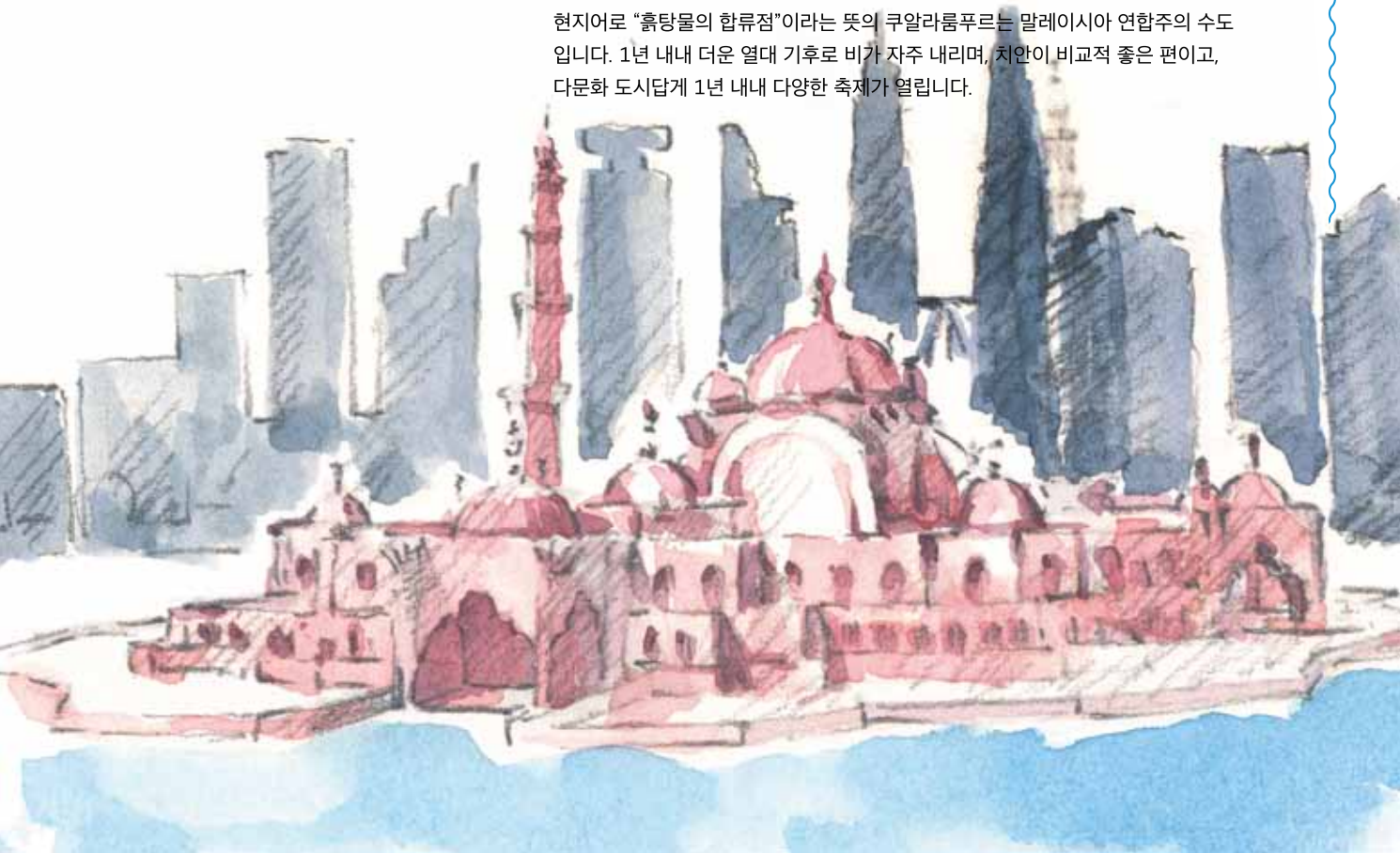
청훈탱 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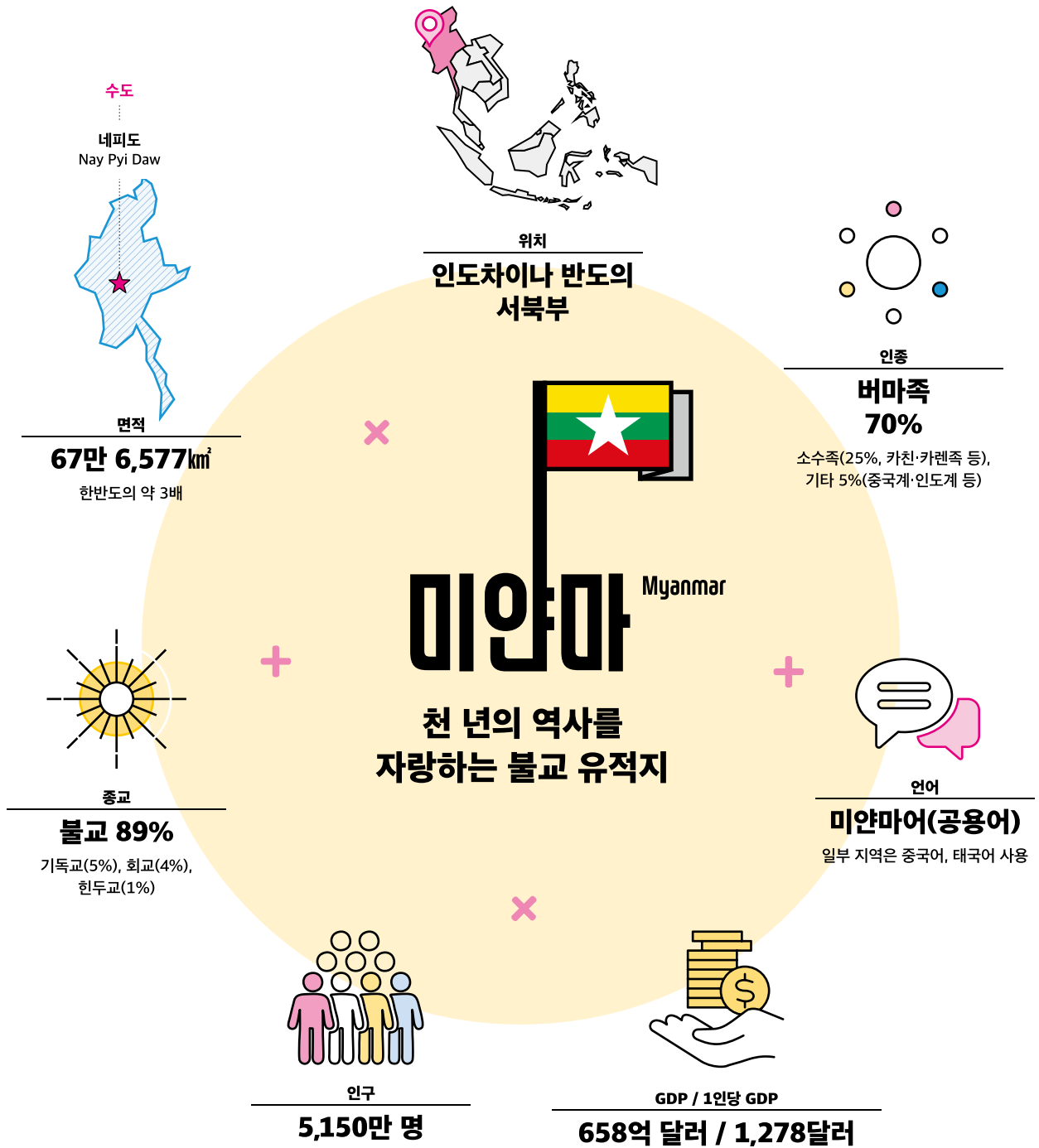
스리 포아타 비노아가르 무르티 사원

캄퐁 클링 모스크

07 쿠알라룸푸르 Kuala Lumpur

현지어로 “흙탕물의 합류점”이라는 뜻의 쿠알라룸푸르는 말레이시아 연합주의 수도입니다. 1년 내내 더운 열대 기후로 비가 자주 내리며, 치안이 비교적 좋은 편이고, 다문화 도시답게 1년 내내 다양한 축제가 열립니다.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얀마(Republic of The Union of Myanmar)는 인도와 중국 문화의 교차점에 위치하여 고대로부터 두 나라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불교문화가 번성하여 일찍부터 불교 연구의 중심지가 되어왔습니다. 지금도 50만 명이 넘는 승려가 있고 국민의 89%가 불교신자이며, 수많은 불탑이 남아 있어 나라 전체가 '불교 유적지'로 불립니다. '버마'에서 '미얀마'로 국가 명칭을 변경하고 정치적 변화를 겪으며 국제사회에서 모습을 잠시 감추었던 미얀마는 최근 문화·산업적 저력을 바탕으로 새롭게 국제사회에 모습을 드러내어 세계 경제인들이 주목하는 희망의 나라입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긴 미얀마는 산악지대와 평야지대, 고원지대 등 다양한 지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북부는 아열대성 기후를 보이지만 전체적으로는 열대몬순 기후로, 우기에는 운전이 불가능할 정도로 소나기가 심하게 내리기도 합니다.

01 공식 국장

2008년에 제작된 미얀마의 국장에는 월계수 사이에 노란색 미얀마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국장 양쪽에는 미얀마의 전통적 사자상인 친체가 그려져 있습니다. 국장 전체에는 미얀마의 전통적인 꽃 문양이 장식되어 있으며 국장 위에는 노란색 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02 카카보야지 산

카카보야지 산은 미얀마의 가장 북쪽에 있으며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해발 5,881m로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산입니다.

03 투명한 물빛 인레 호수 Inle lake



해발 880m의 고원지대에 위치한 인레 호수는 미얀마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드넓은 호수에서 나오는 수산자원도 풍부하여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이 호수 위에 대나무나 통나무로 집을 짓고 수상생활을 해 왔습니다. 인레 호수에서는 외발로 노를 저으며 두 손으로는 물고기를 잡는 독특한 자세의 사공을 볼 수 있습니다.

04 기후

미얀마의 총 면적은 67만 6,577km로 인도차이나 반도 국가 중 가장 크며, 세계에서는 40번째로 큼니다. 국토는 북쪽은 높고 남쪽은 낮은 형태이며 최북단에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카카보야지 산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국토가 남북으로 길기 때문에 기후 차이가 큰 편입니다. 풍부한 수량, 비옥한 토양, 고온의 열대 기후가 제공하는 최적의 농업환경으로 농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05 천 년의 역사를 간직한 바간 Bagan

미얀마의 몇몇 고대 왕국의 수도였던 바간은 유네스코에서 지정한 세계3대 불교유적 가운데 한 곳입니다. 11세기 바간 왕조가 들어서면서 전국에 400만 개가 넘는 사원이 지어질 정도로 미얀마의 불교문화가 번성하였습니다. 현재는 42㎢의 면적에 2,300여 개의 탑과 사원이 보존된 미얀마 최고의 관광지입니다.

06 화폐와 경제

미얀마의 화폐 단위는 차트(Kyat)입니다. 차트는 우리나라 화폐단위인 원과 환율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100차트=100원). 동전은 없고 모두 지폐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50차트부터 100·200·500·1,000·5,000·1만 차트짜리 지폐가 사용됩니다.



08 쉐다곤 파고다 Shwedagon Pagoda

양곤은 미얀마에서 가장 큰 도시이자 옛 수도로 '전쟁의 끝' 또는 '평화'라는 뜻입니다. 양곤의 중심에 미얀마인들의 성지인 쉐다곤 파고다가 있습니다. 쉐다곤 파고다는 미얀마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화려한 불교 유적으로 미얀마 불교의 관습과 전통을 한눈에 관람할 수 있는 곳입니다. 쉐다곤 파고다는 '금으로 된 다곤의 불탑 사원'이라는 뜻으로 2,500년 전 고타마 부처 생존 시 미얀마 상인이 8개의 부처님 머리카락을 얻어 와 이곳에 안치한 후 불탑을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07 성인식 신류

미얀마에서 9~13세의 남자 아이들은 머리를 깎고 승려 체험을 합니다. 이 의식은 화려한 왕자로서의 삶을 버리고 승려로 출가한 석가모니를 본뜬 것입니다. 3~6개월의 체험기간이 지나면 일상으로 돌아오며 이후에 완전한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신류의식은 미얀마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제입니다.





우리에게 바나나와 관광지로 알려진 필리핀(Republic of The Philippines)은 스페인 탐험가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오랜 기간 스페인의 통치를 받아 필리핀 문화 전반에 스페인 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는 필리핀이 동남아 최대의 가톨릭 국가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후 미국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며 일상생활에서 서구 문화를 자연스럽게 즐깁니다. 낙천적이고 현실의 삶을 즐기기를 좋아하며 음악을 사랑하는 국민성을 가진 필리핀은 1948년부터 우리나라와 많은 교류를 하고 있는 아주 가까운 나라입니다. 세부·보라카이 등 유명한 관광지가 많고 영어 소통이 자유로워서 항상 전 세계 사람들로 붐비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7,000여 개의 크고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필리핀은 아름다운 바다를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입니다. 연중 온화한 날씨와 야자수, 해변, 산호로 이루어진 열대 바다가 필리핀의 대표 풍경입니다.

01 공식 국장

방패의 흰 부분에 있는 3개의 금색 별은 필리핀의 주요 섬인 루손 섬, 비사야 제도, 민다나오 섬을 뜻합니다. 가운데 금색 태양의 8개 햇살은 최초로 스페인에 반기를 든 8개 주입니다. 방패 아래쪽에 그려진 독수리와 사자는 식민통치를 받았던 필리핀의 과거를 의미합니다. 방패 아래쪽 리본에는 “필리핀 공화국”이 타갈로그어로 쓰여 있습니다.



02 볼거리 많은 세부 Cebu

세부 섬은 1521년 마젤란이 발견하여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세부 시티는 세부 주에 있는 도시로 필리핀에서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항공 노선의 중요한 길목이며, 상업·무역의 중심지이고 온화한 기후 때문에 1년 내내 휴양지로 인기가 높습니다.



어서 와~



04 활기 넘치는 마닐라 Manila

마닐라는 세계에서 가장 좋은 항만으로 일컬어지는 마닐라 만을 끼고 있는 항구도시이자 필리핀의 수도입니다. 이곳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사립학교인 산토 토마스 대학교를 비롯하여 필리핀 국립대학 등 교육기관이 많습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찾는 대표적인 곳입니다.

03 필리핀의 작은 진주 보라카이 Boracay

필리핀어로 ‘바람의 벽’이라는 뜻을 가진 보라카이는 면적 약 11km²의 산호섬입니다. 에메랄드 빛 바다와 산호가루로 만들어진 곱고 깨끗한 해변으로 널리 알려져 세계적인 휴양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3대 해변으로 꼽히는 보라카이는 연평균 기온이 26~27도로 열대 기후이며 1년 내내 해수욕을 할 수 있습니다.

05 고마운 친구 필리핀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한국의 자유를 위해 함께 싸워 주었습니다. 필리핀 역시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웠음에도 약 7,000명을 파병하였는데, 이는 참전국가 중 4번째로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이후 한국과 필리핀은 60여 년간 우호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06 세계 8대 불가사의 계단식 논



필리핀의 루손 섬 고지대에는 코르딜레라스 산맥을 따라 만들어진 계단식 논이 있습니다. 2,000년 전 가파른 산을 깎고 바닥을 다져 만들어진 이 논은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논두렁을 모두 연결하면 지구 반 바퀴를 돌 만한 길이라고 합니다. 이 계단식 논은 1995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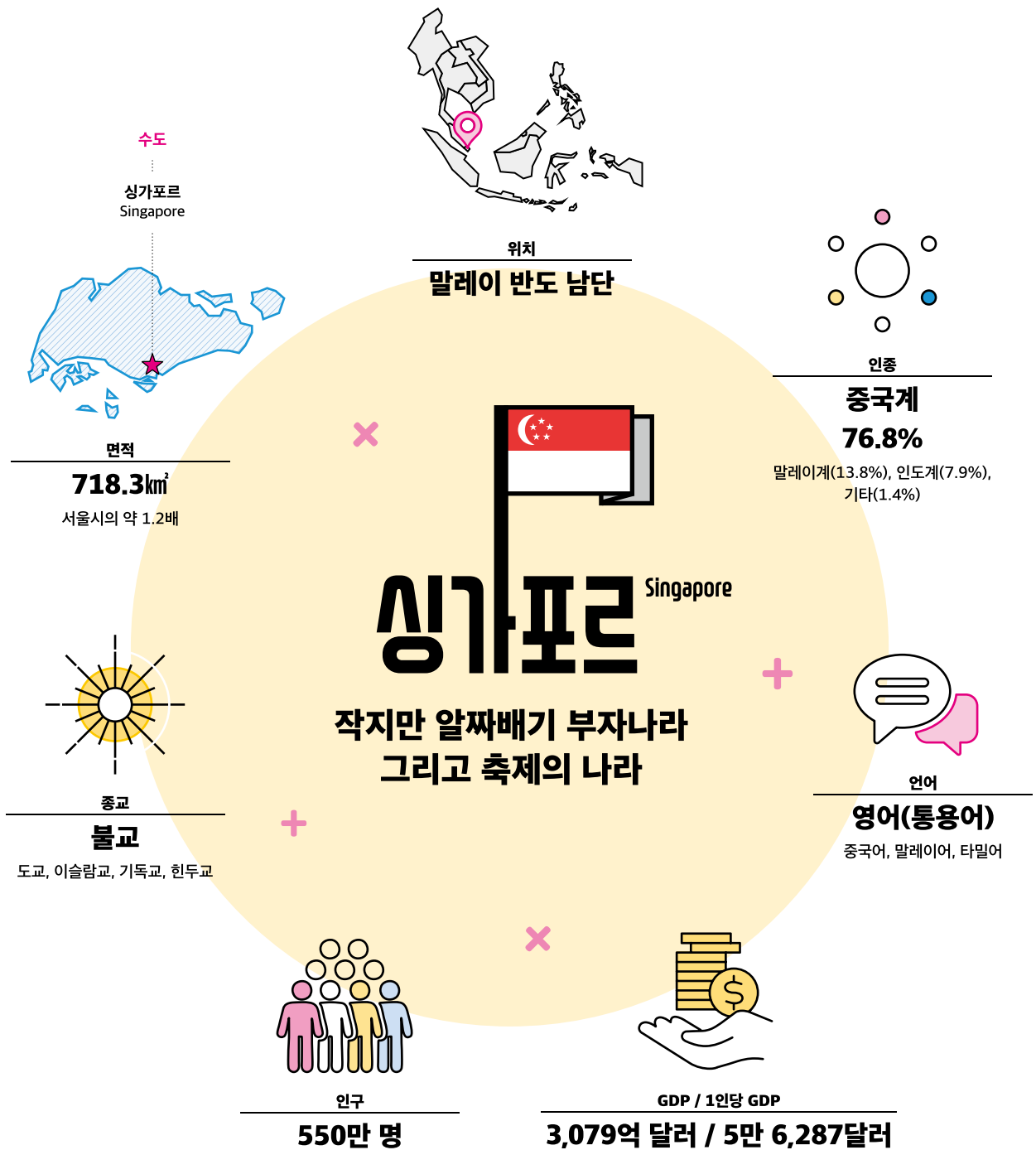
07 필리핀의 영웅 파퀴아오

필리핀의 빈민촌에서 6남매 중 넷째로 태어난 파퀴아오는 홀어머니와 가족을 위해 12세 때부터 글러브를 썼습니다. 1995년 프로에 입문한 이후 피나는 노력으로 수많은 타이틀을 따냈습니다. 상금으로 필리핀에 병원과 학교를 짓고 장학재단을 설립하는 등 기부를 하여 '필리핀의 영웅'이라 불리기 시작하였고, 2010년에는 필리핀 하원의원에 당선되기도 하였습니다. 2016년 4월 10일 경기를 끝으로 은퇴하였습니다.

08 산아구스틴 성당

16세기 스페인은 필리핀을 지배하면서 마닐라에 유럽풍 건축물을 많이 지었습니다. 필리핀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인 산아구스틴 성당은 1586년에 짓기 시작한 바로크 양식의 성당입니다. 교회 내부에는 16세기 상들리에와 18세기 파이프오르간 등 진귀한 물건이 가득합니다. 1994년에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싱가포르 Republic of Singapore는 말레이 연방의 일부로서 무역 거점도시로 개발되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독립하여 말레이시아와는 다리로 연결된 작은 섬나라입니다. 많은 것들을 수입에 의존해야 하는 작은 나라이지만 금융·무역에 힘을 쏟아 아시아에서는 일본 다음가는 경제부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다양한 민족이 어우러져 이루어 내는 어울림의 나라로 유명한 싱가포르는 미국처럼 이민자들이 건설해 온 국가입니다. 최근에는 잘 관리된 도시와 다양한 축제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을 모으고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는 매달 축제가 열립니다. 음식 축제, 중원절, 칭게이 퍼레이드, 디파발리, 월병축제에서부터 힌두교·이슬람·불교·기독교 등 종교 관련 축제, F1 경기, 패션쇼 등 세계적 행사까지... 싱가포르의 언제나 즐거운 축제의 나라입니다.



02 독립국가

1965년 말레이시아 연방에서 탈퇴하여 완전한 독립을 한 싱가포르지만 국장 안에 호랑이 그림을 남겨 둬으로써 말레이시아와의 역사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자는 싱가포르를 뜻하며 5개의 별은 민주주의, 평화, 정의, 진보, 평등을 의미합니다. 파란 리본에는 "전진하는 싱가포르"라는 문구가 말레이어로 쓰여 있습니다.

01 섬들을 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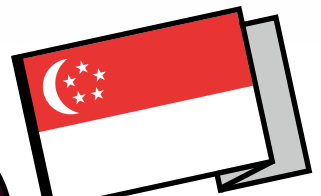
말레이 반도 끝에 위치한 섬나라이자 도시 국가인 싱가포르는 크고 작은 섬 6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간척사업으로 1960년대에는 581.5km²였던 국토 면적이 현재 718.3km²로 확장되었으며 2030년까지 100km²를 더 확장할 계획입니다. 작은 섬들은 다리, 케이블카 등으로 본섬과 연결됩니다.

03 아시아의 금융허브

세계 3위의 금융경쟁력을 가진 싱가포르는 금융청이라는 별도의 정부부처를 두고 금융산업의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나라가 된 싱가포르의 큰 부분입니다.

04 눈부신 경제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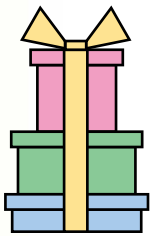
면적은 서울보다 조금 넓고 인구는 서울의 절반가량인 작은 나라지만 1인당 GDP는 5만 6,000여 달러인 부자국가입니다. 20세기 후반에 초고속 경제성장을 이루었으며 2010년 경제성장률은 아시아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효율적이고 청렴도가 높은 편이며 투명한 시장경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05 다민족 국가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싱가포르를 여행하면 말레이시아·중국·인도를 한 번에 여행한 것처럼 다양한 문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주민들이 건설한 싱가포르는 이민을 장려하고 다양한 민족의 전통과 종교를 축제로 수용하는 나라입니다.

07 다양한 에티켓



다양한 민족이 어울려 사는 싱가포르에서는 민족별 에티켓을 지켜야 합니다. 무슬림이 많은 말레이계에게는 술을 선물하거나 돼지고기를 권하는 것이 금기시됩니다. 또 인도계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야 하지만 소고기와 관련된 선물은 안 됩니다.

06 2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싱가포르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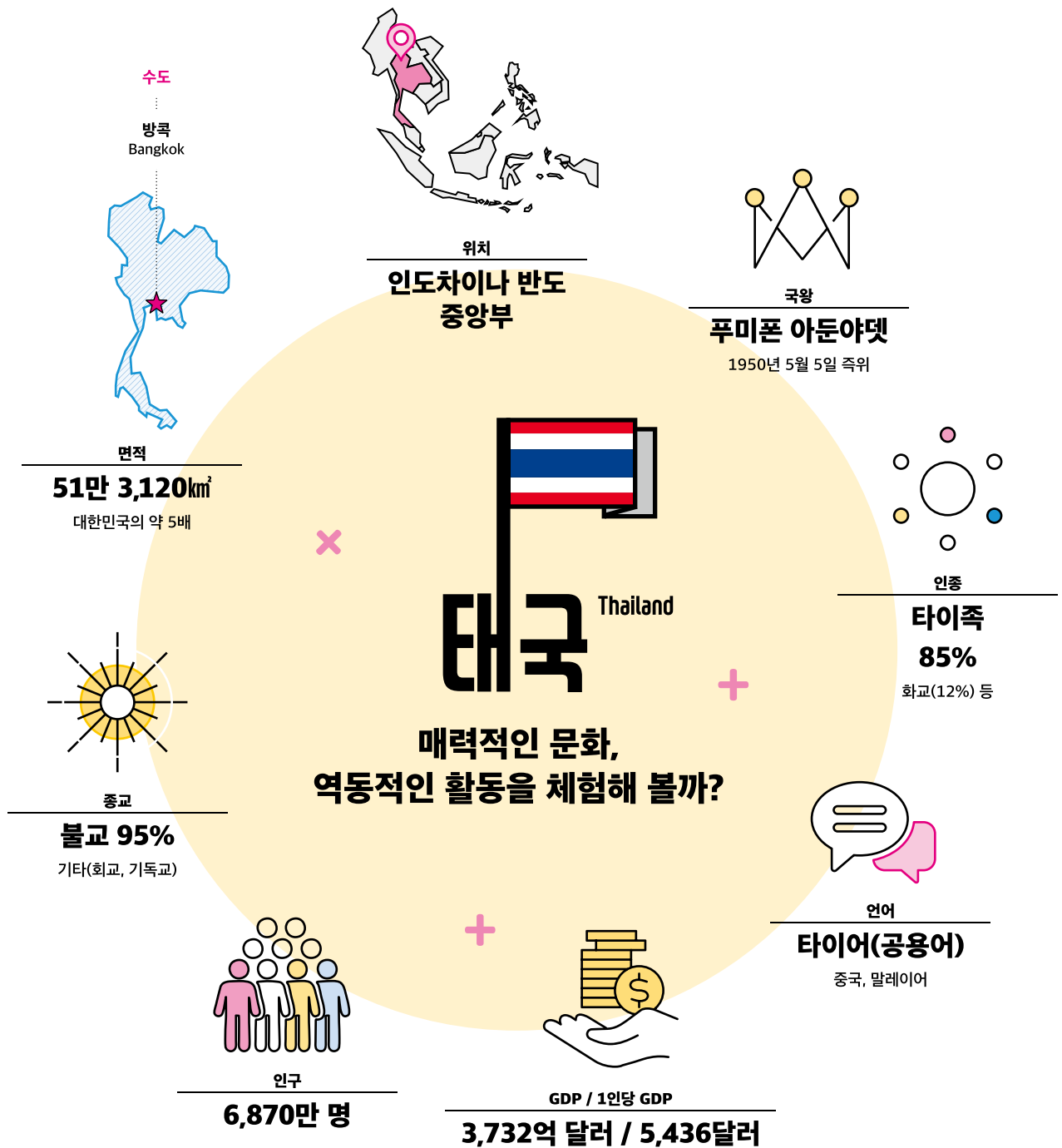
싱가포르 사람들은 보통 2개의 언어를 배웁니다. 공용어인 영어와 자기 민족의 언어를 배우게 되고 추가로 필요한 언어를 배워서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08 멀라이언

사자의 도시로 불리는 싱가포르의 상징인 멀라이언은 인어(Mermaid)와 사자(Lion)의 합성어로, 머리는 사자이고 몸통과 꼬리는 물고기인 조각상입니다. 싱가포르에는 총 5개의 멀라이언 상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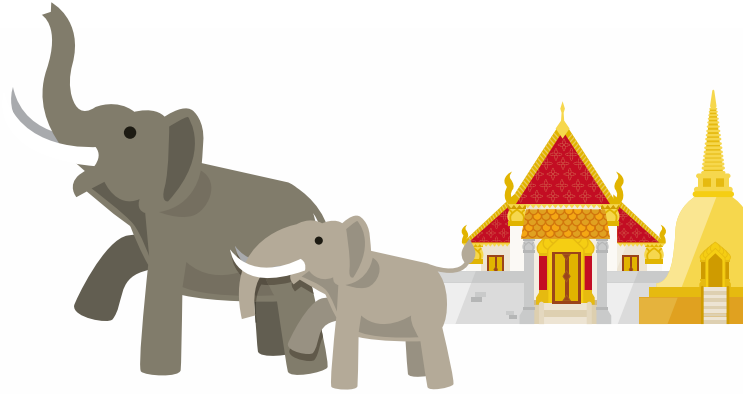
고려시대부터 우리나라와 교류해 온 태국(Kingdom of Thailand)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자원을 가진 매력적인 나라입니다. 예로부터 동남아시아의 동서를 완충하는 중심에 있는 국가로 교통이 발달하였고 오늘날에도 방콕 공항은 아시아의 허브 공항으로 많은 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발달한 관광산업이 국가 GDP의 10%에 이릅니다. 국민 대부분이 불교를 믿는 태국에서 승려는 매우 존경받는 대상이며, 지역의 사원이 학교나 병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입헌군주제 국가로 의회와 총리가 있습니다. 왕과 왕가가 국민들로부터 많은 존경을 받는 태국에서는 왕에 대한 불경한 행동을 법으로 처벌하기도 합니다.



태국은 나라 크기만큼이나 다양한 자연환경이 존재하고, 많은 관광지가 있습니다. 북부에는 울창한 삼림이 있고, 남쪽에는 아름다운 바다, 내륙에는 큰 강과 고대도시가 있습니다. 우기인 7~10월을 제외하고는 열대와 건기가 이어져 많은 과일과 농산물이 나고 축제가 이어지는 나라입니다.

01 코끼리 머리를 닮은 국토

태국은 긴 코를 가진 코끼리 머리 모양의 특이한 모양을 가진 나라입니다. 국가의 상징도 코끼리이며, 코끼리 전용 병원과 코끼리 대학이 있을 정도로 코끼리를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02 수도 방콕의 다른 이름은?

방콕의 다른 이름은 무려 68자나 되는 “끄룽 텡 마하나콘 아본 랏따나고신 마힌타라 आयुता야 마하딜록 폼 롯빠랏 랏차타니 부리롬 우돔랏차니웻 마하사탄 아몬 빼만 아와딤 사딧 사카타띠야 윗사누감 뿌라싯”입니다.

03 동남아 유일의 독립국가

수코타이, आयुता야, 시암을 거친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태국은 19세기 주변국들이 서구 열강의 지배를 받고 일본의 통치를 받을 때도 동남아에서 유일하게 독립을 유지한 국가입니다. 왕국에서 입헌군주제로 바뀌고 세계대전에 참여한 태국은 6·25 때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우리나라를 도와준 고마운 나라이기도 합니다.

04 국왕과 화폐

태국의 돈은 바트로 부릅니다. 경제가 활성화된 태국의 돈은 주변 나라에서 종종 쓰일 정도로 영향력 있는 화폐입니다. 특이하게도 모든 지폐에는 현 국왕인 ‘푸미폰 아둔야뎃’ 한 사람의 초상화가 들어가 있습니다. 입헌군주제 국가임에도 국민들을 위해 많은 일을 한 국왕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05 전통 무용

화려한 전통 복장을 갖추고 절제된 동작을 하는 태국의 전통무용은 지역별로 다양하게 발달하여 있습니다.





06 아름다운 사원들

국민의 95%가 불교를 믿는 태국에는 곳곳에 아름다운 사원들이 있습니다. 에메랄드 불상과 황금 불상, 화려한 불교 사원들은 태국인들의 신앙심을 잘 보여줍니다. 또한 남자들은 만 20세가 되면 짧은 기간 동안 승려생활을 하는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07 태국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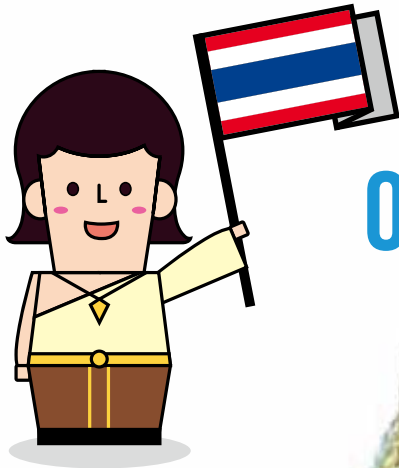
태국은 고유의 문자를 사용합니다. 말 뒤에 남성은 '크랍', 여성은 '카'만 붙이면 높임말이 되는 태국어는 왕실에 대한 높임말과 승려에 대한 높임말도 따로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สวัสดีครับ ยินดีที่ได้รู้จักครับ

(남성: 싸왓디- 크랍. 인디-티-다이 루-짹 크랍.)

(여성: 싸왓디- 카. 인디-티-다이-루-짹-카.)



09 왕궁

방콕에 있는 태국의 왕궁은 아주 화려한 금빛을 자랑합니다. 아름다운 건축물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08 무에타이

무에타이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전통 무술입니다. 1,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태국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이며, 전 세계에서 '타이복싱'이란 이름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베트남의 공식 명칭은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비엠티에 맞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베트남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긴 해안선을 가진 지형과 위치 때문에 외세의 침략이 많았고, 중국·프랑스·일본의 지배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2차 대전 후 가장 큰 전쟁이었던 월남전을 겪기도 하였지만 베트남인들은 특유의 강인한 민족성으로 이를 극복하였습니다. 우리와 같이 유교문화에 영향을 받아 교육열이 높고 공부를 통한 자수성가를 크게 평가합니다. 하지만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상하 구분이 거의 없고 부부가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등 스스로없이 대하는 점은 우리와 다릅니다. 풍부한 인적 자원과 천연자원은 개방 이후 베트남의 큰 자산이 되었으며, 현재 동남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남북으로 길게 늘어진 베트남은 다양한 기후와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서 깊은 절과 프랑스 통치 시대에 지어진 유럽식 건물,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기 위해 전 세계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하노이

01 하롱베이 Ha Long Bay

“용이 내려온 자리”라는 뜻을 가진 하롱베이는 1,970개가 넘는 기암괴석이 솟아 있는 아름다운 해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선정된 이곳의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전통배를 타고 유람합니다.

02 씨클로

지금은 오토바이와 차량이 가득한 베트남의 도로이지만 베트남의 명물 자전거 택시 씨클로는 아직까지 관광객을 나르고 있습니다.

03 실용적인 모자 ‘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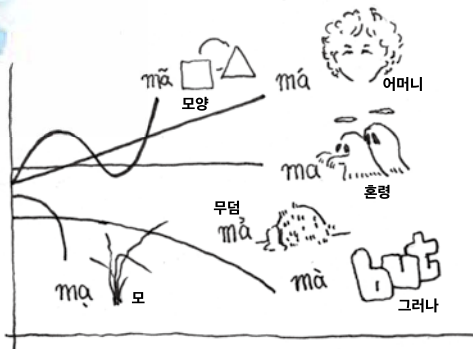
양산이자 우산이고 부채인 베트남 전통 모자는 참으로 실용적인 물건입니다. 대나무로 만들어 가볍고 튼튼하며, 원래 용도 말고도 바가지 대신이나 가리개 등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04 긴 해안선

베트남은 서울에서 부산 거리의 8배나 되는 3,444km에 이르는 긴 해안선을 가진 국가입니다.

05 배우기 어려운 언어 베트남어

베트남어는 같은 단어가 발음에 따라서 다른 뜻이 되는 성조가 6개나 됩니다.



06 베트남 패션의 상징 '아오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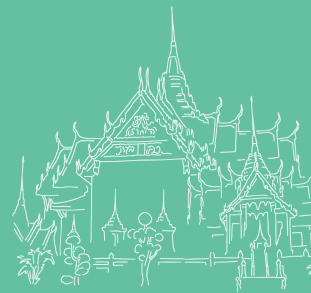
베트남 여성의 전통 복장인 아오자이는 그 특유의 아름다움으로 베트남의 상징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통 의상이지만 다양한 패션으로 발달하여 평상시에도 많이 입는 아오자이는 여고생들의 교복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07 베트남 음식 세계로 가다

베트남의 음식은 동남아 음식 중 가장 인기 있고 전 세계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맛있는 음식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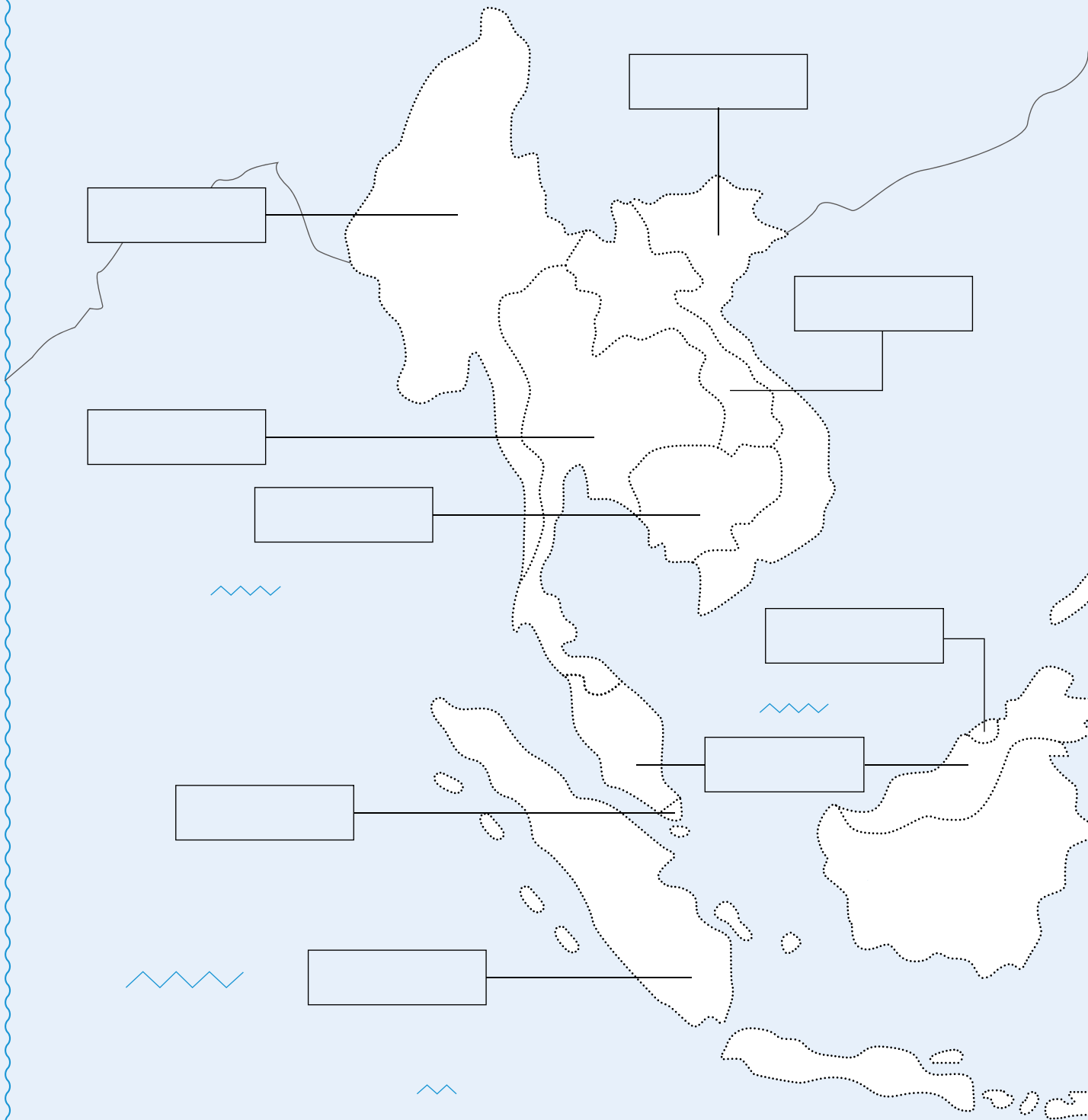


함께 가는 친구 아세안





아세안을 찾아라!



아세안 10개국의 이름과 위치를 기억하나요?

해당 국가의 이름을 쓰고 국기 스티커를 알맞게 배치해 봅시다.

(지도 스티커는 책 뒤에 있습니다. S-01)

인도네시아 가장 많은 섬을 가지고 있고, 가장 남쪽에 있습니다.

필리핀 인도네시아 다음으로 섬이 많은 나라예요. 한국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브루나이 한 면은 바다와, 나머지는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싱가포르 다음으로 작은 나라입니다.

라오스 유일하게 바다를 끼고 있지 않은 나라예요. 태국의 동쪽, 베트남의 서쪽에 위치하며, 중국과 미얀마와도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태국 라오스, 베트남, 미얀마, 말레이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국토의 모양이 나라의 상징인 코끼리의 머리를 닮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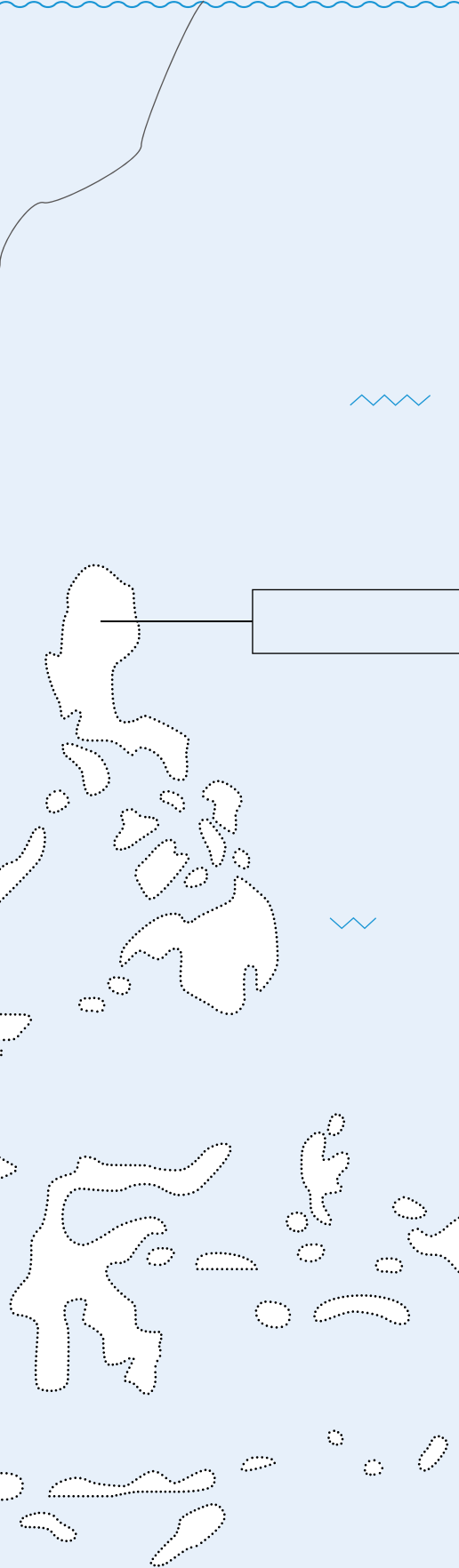
미얀마 북동쪽으로는 육지, 남서쪽으로는 바다와 맞닿은 나라예요. 태국과 긴 국경을 마주하고 있어 두 나라 간 교류가 활발합니다.

싱가포르 면적이 가장 작은 나라로 말레이 반도의 가장 아래쪽에 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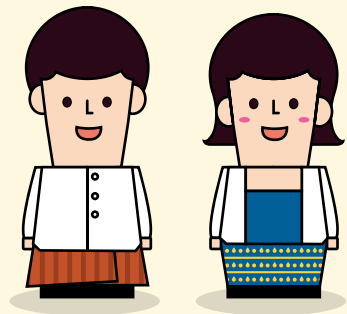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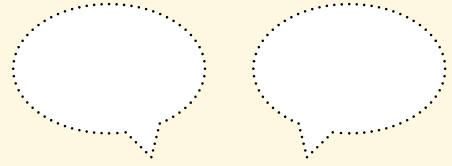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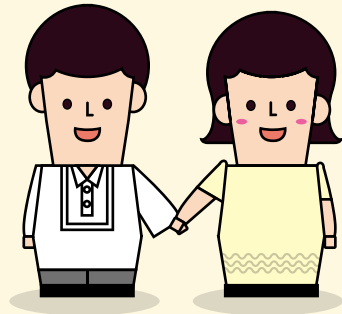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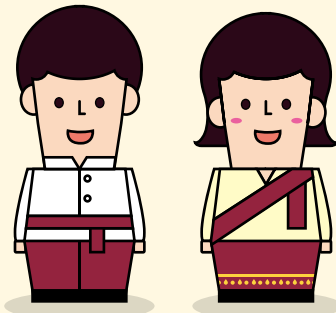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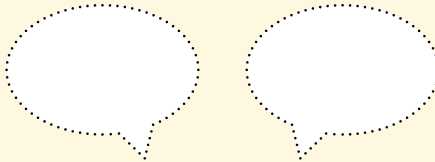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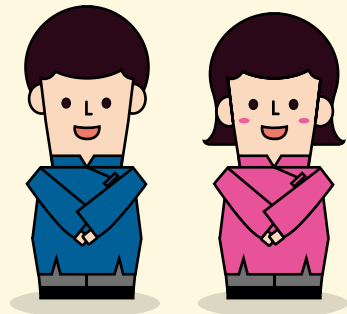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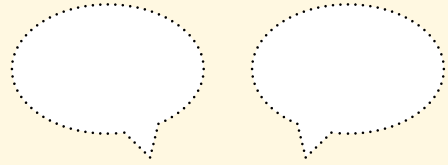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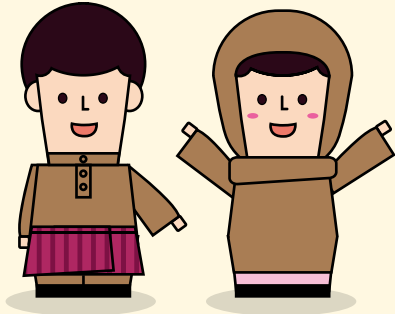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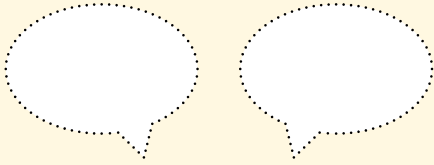
베트남 동쪽으로는 바다, 서쪽으로는 라오스·캄보디아를 따라 국토가 길게 이어져 있어요.

캄보디아 베트남, 라오스, 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어요.

말레이시아 말레이 반도 남부에 위치한 곳과 인도네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섬, 두 군데로 이루어져 있어요.



아세안 말로 인사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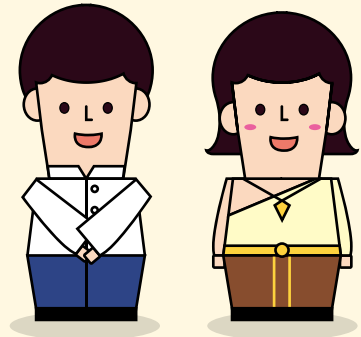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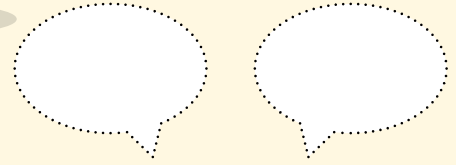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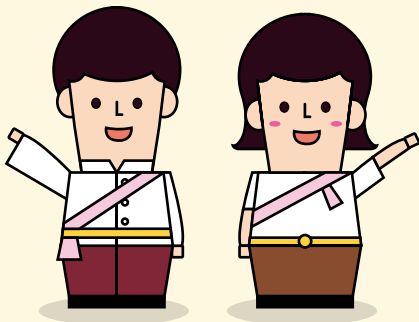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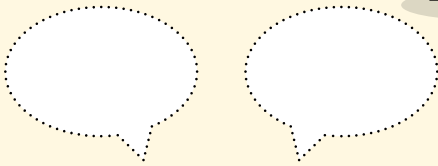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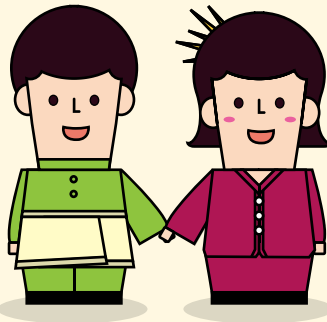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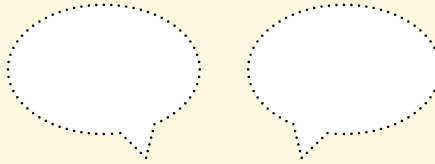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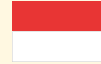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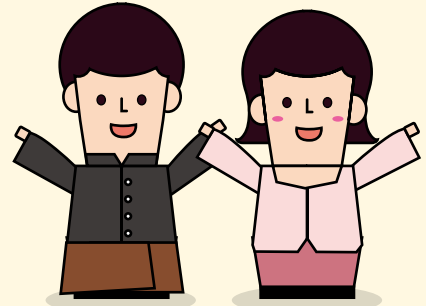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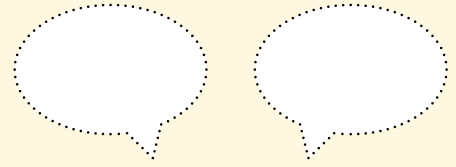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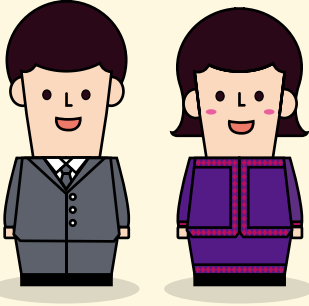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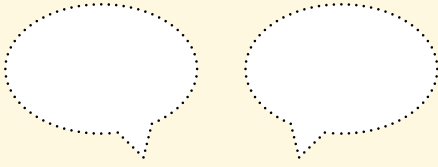


나라별 캐릭터를 이용하여 아세안 말로 인사해 봅시다.

(말풍선 스티커는 책 뒤에 있습니다. S-02)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아세안 먹방!

아세안 국민들은 여러 가지 조리법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아세안 사람들이 즐겨 먹는 음식입니다.
현지어로 된 음식 이름과 설명을 알맞게 이어 볼까요?



카오람



● 캄보디아의 전통 요리로 코코넛에 카레, 고기와 생선, 채소와 양념을 넣어 푹 끓입니다. 바나나 잎에 싸서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꾸언



● 라오스 사람들이 즐겨 먹는 대나무 통구이 찹쌀밥입니다. 고구마나 토란을 코코넛 물에 섞어 대나무 속에 넣고 구운 요리로 달콤한 맛이 특징입니다.



칠리 크랩



● 싱싱한 메기로 국물을 우려내어 쌀국수와 삶은 달걀, 튀김 등을 넣어 먹습니다. 이 음식은 미얀마의 대표적인 서민 음식입니다. 미얀마에서는 이 음식을 주로 아침에 먹습니다.



아묵



● 신선한 게를 매콤달콤한 소스로 요리한 음식으로, 싱가포르 관광청이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설문조사에서 해마다 최고의 현지 음식으로 선정되곤 합니다.



모헝가



● '쌈을 싸다'라는 뜻을 가진 이 음식은 얇은 쌀종이에 각종 채소와 새우, 얇게 썬 고기 등을 넣고 싸 먹습니다. 간편하면서도 영양가 높은 서민 음식입니다.

내가 주는 아세안 음식 별점은?

이 음식들은 어떤 맛일지 상상하며 별점을 채워 봅시다.



브루나이 : 암부얏

사고야자 나무줄기에서 추출한 녹말가루를 반죽한 음식으로, 새콤한 과일 소스와 함께 먹습니다. 구운 생선과 젓갈 등이 곁들여진 브루나이의 대표적인 전통 음식입니다.



필리핀 : 레촌

새끼 돼지를 통째로 구운 돼지 바비큐. 필리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전통 요리로 생일 등의 축하 자리나 새해 축제, 각종 행사와 모임에 빠지지 않는 대표 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 미 고랭

볶음 면. 나시 고랭과 함께 인도네시아를 대표하는 대중음식으로, 다양한 채소와 닭고기·해산물 등을 면과 함께 볶은 것입니다.



태국 : 퐁양궁

매콤새콤한 맛이 특징인 태국식 수프. '궁'은 새우를 뜻하고 새우 외에 맛과 풍미를 위한 다양한 재료와 향신료가 들어갑니다.



말레이시아 : 나시 르막

코코넛 밀크로 지은 밥에 삼발 소스와 튀긴 멸치, 땅콩, 오이, 달걀을 곁들인 것으로 대중적인 아침식사입니다. 나시(Nasi)란 쌀밥을 뜻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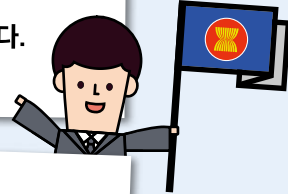
Quiz! Quiz!

01

아세안 회원국은 모두
() 개국이다.

02

아세안 사무국은 동남아시아 중
() 나라 의
() 도시 에 위치하고 있다.



03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11개국으로 구성된
국제기구의 이름은?

()

04

싱가포르의 수도는 싱가포르다.

(O, X)

05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앙코르와트 사원
이 있는 나라는 () 이다.

06

세계 8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계단식 논을 볼
수 있는 나라는?

- ① 인도네시아 ② 필리핀
- ③ 캄보디아 ④ 말레이시아

07

발리는 태국에 있는 유명한 관광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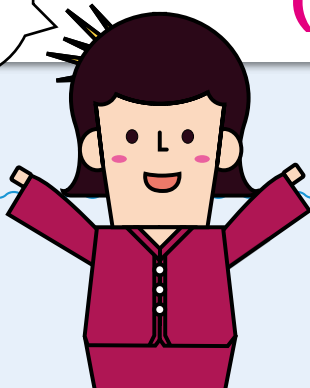
(O, X)

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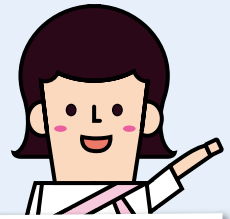
세계 3대 불교 유적 중 하나로 수만 개의 불탑
이 곳곳에 있는 나라는?

- ① 미얀마 ② 라오스
- ③ 태국 ④ 베트남

마지막까지
열심히!!



맛혀
보세요~



09

다음 중 '아빠 까바르'라는 인사말을 사용하지 않는 나라는?

- ① 인도네시아 ② 브루나이
- ③ 캄보디아 ④ 말레이시아

10

라오스에서 지켜야 할 예절 중 틀린 것은?

- ① 걷는 것과 운동할 때를 제외하고 발을 사용하는 것은 무례한 행동이다.
- ② 다른 사람 앞에서 큰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
- ③ 앉아 있는 사람의 앞쪽으로 지나가서는 안 된다.
- ④ 여성은 승려의 몸뿐만 아니라 옷에도 손을 대면 안 된다.

11

베트남의 전통복장 중 여성이 입는 옷을

() 라고 한다.

12

말레이시아는 () 국가다.

- ① 불교 ② 힌두교
- ③ 천주교 ④ 이슬람교

13

아세안 회원국 중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는?

(), ()

14

브루나이에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엄격한 형법인 () 이 있다.

15

무에타이는 태국의 전통무술이다.

(O , X)

16

똥양갱은 베트남의 대표적 음식이다.

(O , X)



Quiz 정답

01 10개국

09 ③

02 인도네시아 / 자카르타

10 ③

03 한-아세안센터

11 아오자이

04 O

12 ④

05 캄보디아

13 태국, 필리핀

06 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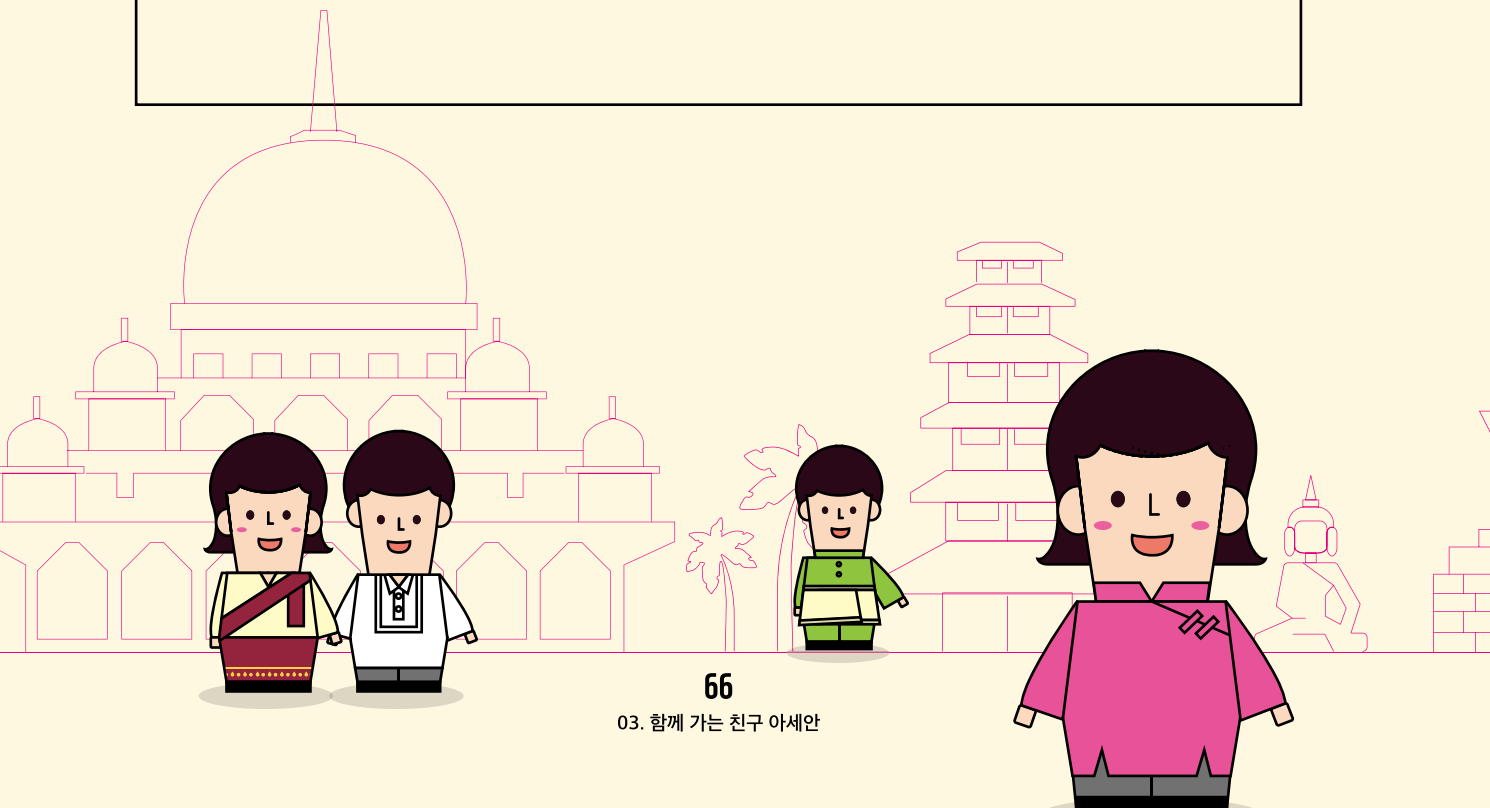
14 샤리아 형법

07 X (인도네시아)

15 O

08 ①

16 X (태국)



한-아세안센터에 대해 알아볼까요?



01 한-아세안센터 설립

2007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11차 한-아세안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아세안 10개국 정부는 한-아세안센터를 설립하기로 양해각서에 서명하였어요. 이에 따라 2009년 3월 13일 서울에서 정부 간 국제기구 '한-아세안센터'가 출범되었지요.

02 설립 목적은?

한-아세안센터는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들 간 무역과 투자를 활발히 하여 경제협력을 강화하고, 또 문화교류와 관광을 활성화 하여 서로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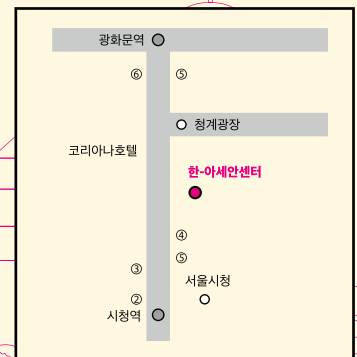
03 한-아세안센터 회원국은?

한국과 아세안 10개 회원국인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입니다. 모두 합하여 11개국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04 한-아세안센터 찾아오는 길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내(8층)에 있어요.
지하철로는 1호선과 2호선 시청역 4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2~3분 내 한-아세안센터에 도착할 수 있어요.

한-아세안센터는 청소년 여러분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문의 tel.02-2287-1117



내 친구 아세안

발행일 2016년 5월 6일

발행 한-아세안센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4
02) 2287-1115
www.aseankorea.org
info@aseankorea.org

제작 디자인인트로
www.gointro.com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 및
복제를 금지합니다. 이 책의 글이나 이미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한-아세안센터의 서면 허락을 받아야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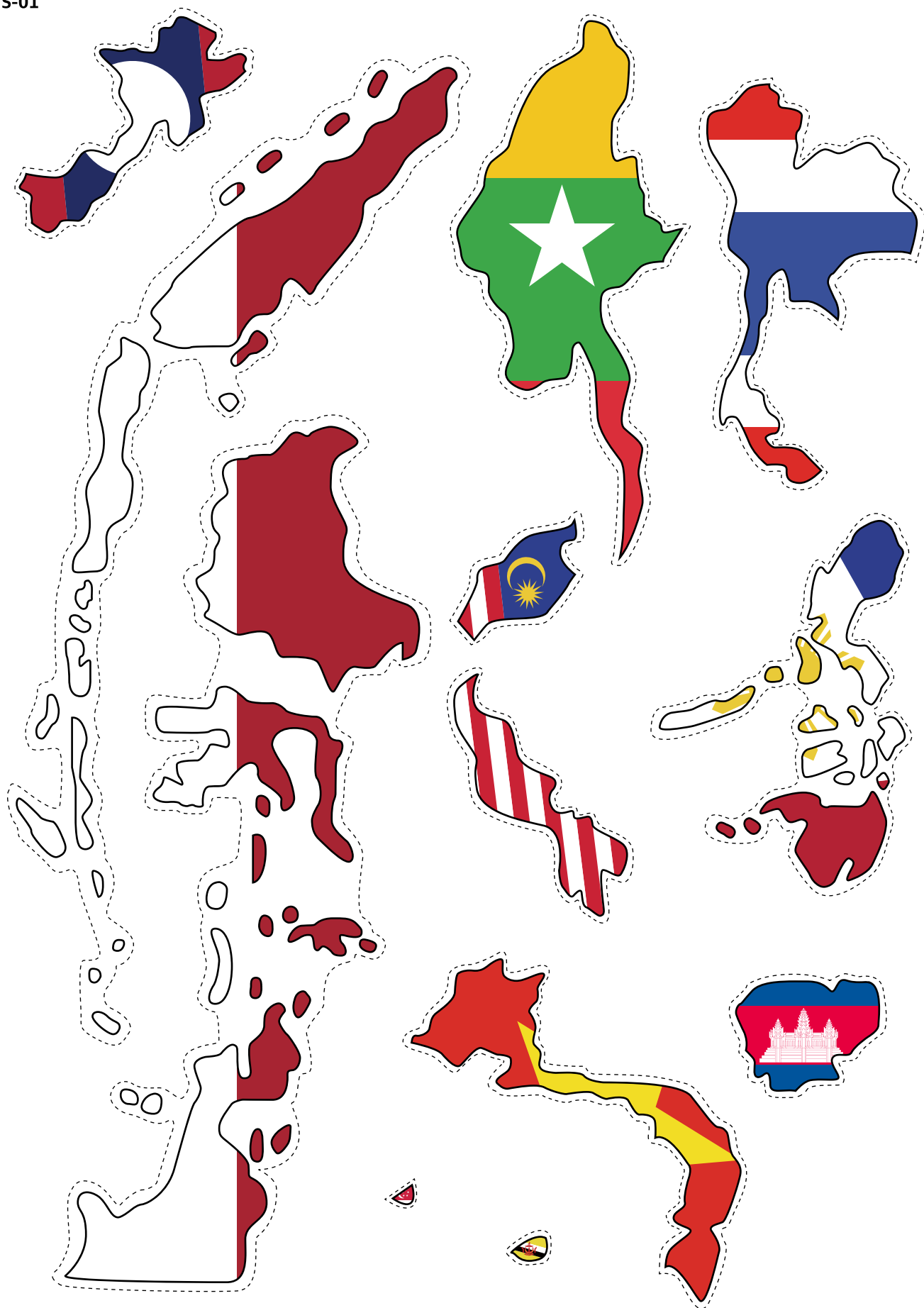
청소년용
아세안 바로 알기
워크북



ASEAN-KOREA CENTRE



ISBN 979-11-953832-4-5



**아빠
까바르**

인도네시아

**뜨리
마까지**

말레이시아

**아빠
까바르**

브루나이

**아빠
까바르**

말레이시아

어꾼

캄보디아

좀 립 쑤어

캄보디아

컵쿤 까

태국

재주띤바데

미얀마

밍갈라바

미얀마

씨에씨에

싱가포르

깜언

베트남

컵짜이

라오스

사왓디 캡

태국

살라맛

필리핀

**뜨리
마까지**

인도네시아

**마간당
우마가**

필리핀

사바이지

라오스

니하오

싱가포르

씬짜오

베트남

**뜨리
마까지**

브루나이